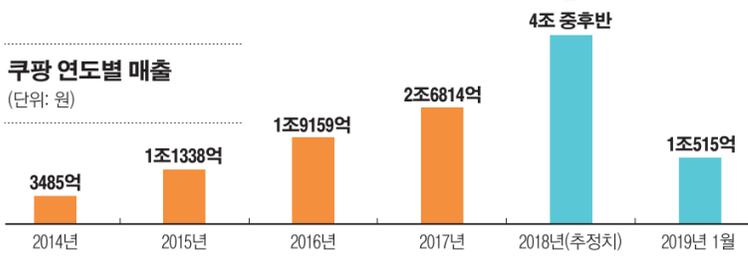


‘로켓배송’ 쿠팡 매출 10兆 쏜다

(2019년)



작년 12월 이어 올 1월 1조 돌파
이커머스기업 연매출과 맞먹어

매년 70%대 초고속 성장
올해도 톱 투자로 업계 '긴장'

쿠팡이 로켓 배송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이커머스 업계에 긴장케 하고 있다.

12월 앱 분석기업 와이즈앱이 국내 신용·체크카드 데이터를 표본 조사한 결과 쿠팡은 지난해 12월(1조176억 원)에 이어 올 1월(1조515억 원)에도 월 매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웬만한 이커머스 기업의 연 매출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베이코리아의 2017년 연 매출은 9519억 원이었다.

신세계가 새롭게 출범시킨 통합 온라인 법인 쓱닷컴의 매출도 2조 원대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위메프의 1월 전체 거래액은 55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쿠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위메프의 1월 매출액은 지난해 1월 쿠팡의 신용카드 결제액 5710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쿠팡은 매년 70%대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추정 매출이 4조 원대 중후반임을 감안하면 올해 7조 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월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연매출 10조 원 시대를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 매출 10조 원은 쓱닷컴을 출범시키면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제시한 2023년 매출 목표량 같은 수준이다.

쿠팡의 2014년 매출액은 348.5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1조1338억 원으로 3배가량 매출이 늘어나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7년에는 쓱닷컴과 함께 이커머

스 기업 매출 2조 시대를 열었다. 2017년 쓱닷컴과 매출 평행곡선을 그렸던 쿠팡은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업계 최초로 매출 4조 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쿠팡은 4%대의 점유율을 달성한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10조7034억 원이다. 이 중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약 7%에 이른다. 1년 전 대비 시장 규모가 17.9%나 커진 것이다.

와이즈앱의 분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국한돼 있다. 현금결제와 계좌이체, 로켓페이 결제분이 누락된 것이다. 때문에 실제 쿠팡의 매출은 와이즈앱의 분석 결과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 원대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낸 쿠팡은 올해 대대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론칭한 멤버십 서비스 '로켓와우클럽'은 1주일 만에 15만 명, 4개월 만에 가입자 16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쿠팡의 강점은 로켓 배송으로 불리는 빠른 배송이다. 신선식품에 국한된 로켓프레시가 올해는 일반 상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로켓프레시는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이전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또 오전 9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되는 서비스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전국의 절반으로 배송 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김범석 쿠팡 사장은 "고객의 삶을 바꿔 쿠팡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로켓 배송만큼 빠른 쿠팡의 변화와 성장에 이커머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남주현 기자 jooh@

ISS, 엘리엇 추천 '현대차 이사' 일부 찬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보통주 고배당 요구안은 반대 권고
현대차 "추천인사 이해상충 가능성
세계적 전문가로 이사회 보강할 것"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사외이사 선임안' 중 일부에 찬성을 권고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이해상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이사회 보강 계획을 밝혔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S는 22일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현대차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후보 3명 중 2명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11일(현지시간) 권고했다.

ISS가 지지하는 후보 2명은 존 Y. 류 배

임정사범대 교육기금이사회 구성원 및 투자위원회 의장, 로버트 랜들 매튜언 발라드파워시스템 회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매튜언 회장뿐 아니라,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로 추천된 로버트 알렌 크루즈 두 사람 모두 경쟁 업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어 적합성 논란과 이해상충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ISS가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간과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로버트 랜들 매튜언 회장은 수소연료전지를 개발, 생산·판매하는 발라드파워시스템 회장이며, 로버트 알렌 크루즈는 중국 전자 업체인 카르마의 최고기술경영자(CTO)다.

반면 ISS는 현대차 이사회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3명 중 윤치원 후보에 대해서

만 찬성 표를 던졌다. 또 현대모비스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도 "창업주 일가의 실질적 영향력과 균형을 잡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날 "국적과 상관없이 전세계 각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외이사 후보군 80여 명의 풀을 만들어 운용 중"이라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보강안을 밝혔다.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전략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를 사외이사진으로 계속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ISS는 현대차 이사회가 제시한 보통주 1주당 3000원 현금배당 안건에 찬성, 엘리엇이 제안한 보통주 1주당 2만 1967원 안건에는 반대 권고를 내놨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타르한 페이지오글루(맨 왼쪽) IMF 연례회의 미션대장이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IMF "韓경제 역풍 직면, 고용 유연성 높여라"

정부와 연례회의...9조 규모 추경 통한 재정지출 확대 조건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우리 정부에 고용 유연성 제고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조언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을 대표로 하는 IMF 협의단은 정부와의 연례회의를 마친 뒤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먼저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지표)을 가지고 있고, 숙련된 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그리고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은 부진하며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했으며, 부정적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사회 양극화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특히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 안전성이 노동시장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도 한국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정책이 우려를 표했다.

IMF는 또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9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마리오아울렛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 탈세·비자금 의혹 조사

대재산가에 대한 탈세 및 탈루 검증에 나선 국세청이 국내 대표 아웃렛 매장인 마리오아울렛과 일부 계열사를 상대로 세무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리오아울렛은 최근 근로자 부당 해고 논란과 임금 체불, 정치권 전방위 로비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1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40~50명을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마리오아울렛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마리오아울렛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심층)세무조사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관련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대상 업체는 마리오아울렛과 마리오쇼핑 그리고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영위하는 마리오엔씨 등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선 상황을 감안할 때 탈세 혐의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미래 먹거리·사회공헌’ 조직 신설...진화하는 재계

SK·하이닉스·가스 등 CEO 직속 신사업 발굴 조직 삼성 스마트공장지원센터·포스코 사회공헌 기업시민실 등 최고경영자 관심사 따라 효율성 개선 위해 조직개편 반영

신사업이나 경영가치 달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꾸리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사와 기업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안팎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요구에 따라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말 사회적가치(SV)추진단을 꾸리고 CEO 직속으로 뒀다. SKC는 CEO 직속으로 더블 보텀 라인(DBL:Double Bottom Line)추구위원회를 신설했다. DBL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

델 혁신을 의미한다. 산하에는 DBL추진실,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실도 마련했다. SK하이닉스와 SK가스는 미래 준비를 위해 각각 CEO 직속 조직을 새롭게 설치했다. SK가스는 신성장에너지 위원회를, SK하이닉스는 미래기술&성장이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SK하이닉스의 미래기술&성장 조직 아래에는 미래연구추진단과 글로벌성장전략 조직이 꾸려졌다. 이들 조직은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포스코는 최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CEO 직속으로 ‘기업시민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시민실은 포스코그룹의 사회공

주요기업 조직 신설 현황

SK	SK이노베이션	사회적가치(SV) 추진단
	SKC	DBL추구위원회(산하 DBL추진실,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실)
	SK하이닉스	미래기술&성장(산하 미래연구추진단, 글로벌성장전략)
	SK가스	신성장에너지위원회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 전장사업팀, 글로벌마케팅센터, 경영지원실
LG		기획팀, 전자팀, 화학팀, 통신서비스팀
LS		미래혁신단
포스코		기업시민실
현대차		EV(전기차) 사업부

*출처: 각 사

헌 활동 전반을 담당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정희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직접 관여하는 전기차 조직을 신설했다. 현대차그룹은 상품전략본부 내에 전기차(BEV·PHEV)를 총괄하는 EV(전기차) 사업부를 만들었다. 이사

업부의 경우 사실상 정 부회장이 컨트롤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정기 조직개편에서 스마트공장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스마트공장지원센터는 2015년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스마트공장 지원 TF’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이다. 또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 사업을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시스템LSI 사

업부장 직속 조직으로 전장사업팀을 확대·개편했다. 지난해 수장이 바뀐 LG는 기획팀, 전자팀, 화학팀, 통신서비스팀을 신설했다. 특히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등 LG 주력 계열사의 사업과 관련된 팀들이 신설되면서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긴밀한 경영 소통라인이 강화됐다. LS는 올해부터 지주사 내에 미래혁신단을 새롭게 만들었다. GS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개선팀을 신설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조직 신설은 회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경고 속에서의 신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 등이 조직개편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변호선 기자 hsyun@ 안경무 기자 noglasses@

“中企도 삼성처럼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세 번째 임기 시작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 “기업상속공제 대상·요건 완화 절실”

“기업 승계를 하기 싫어하는 중견기업이 있겠는가? 높은 상속세, 양도소득세로 경영을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아 기업 승계가 어려운 것이다. 제2, 제3의 삼성, 현대, LG가 필요한 때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오는 기업이 많아야 한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취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세 번째 임기를 맞는 강 회장은 2022년 3월까지 중견련을 이끌 예정이다. 2013년 2월 중견련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2016년 한 차례 연임하고, 1

월 회장단 회의에서 3연임이 확정됐다. 이날 강 회장은 현재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고 반문하며 “중견기업에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공제 의도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업 상속 공제 제도는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기업들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마음껏 투자하고 뛰놀 수 있도록,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신을 일깨워 달라”며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8, 9, 10대 회장으로 3연임을 하게 된 데 관해 강 회장은 “6년을 하고도 한 게 없으니 회원사들이 제발 일 좀 더 하고 그만두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된 것”이라고 겸손을 표했다. 그는 “2013년 중견기업 특별법이 통과돼 2017년 7월 발효해 햇수로 5년을 맞게 됐다”며 “10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반이 지나간 셈인데 사회 상황과 여러 부분이 얽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픈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제2차 기본계획”은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대한민국의 혁신성과 재도약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4468개 중견기업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새 임기 동안 중견련의 대표성을 한층 강화하고 CHO, CTO, 중견기업 Young CEO 등 전문 분야별 네트워크, 지역·업종별 중견기업 협의체 등으로부터 수렴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동남아시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과 14일 조찬에서 만나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정책은 과거 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해당 업무가 넘어왔다가 2017년 7월 다시 산자부로 이관됐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은 지원보다 성장과 육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관된 것”이라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치도 오래 한 분이어서 중기부가 좋은 분을 장관으로 모시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 후보자의 역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천연가스로,
깨끗하 Go 안전하 Go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로
내일은 더 맑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맑음
한국가스공사

중소 수출액 역대 최대... 한류 붐 타고 화장품 약진

2018년 중소기업 수출통계

작년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해외에 제품을 수출한 중소기업들의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18년 중소기업 수출통계 확정치'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087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9만 4285개사로 집계됐다. 한류를 타고 화장품 등의 판매 증진이 호실적을 견인했으며 자동차, 스마트폰용 반도체 등은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제조업 호황 타고 최대 실적 = 작년 중소기업 수출 실적은 이미 11월에 누계액이 1000억 달러를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 예상됐다. 전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호황에 힘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2017~2018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전체 수출액 중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수출 증가폭이 더 컸다는 게 중기부측 설명이다. 2018년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보다 1911개(2.1%) 증가했다. 2016년에 9만 개 사를 넘어선 후 계속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류 덕에 화장품 수출 크게 늘어... 평판 DP·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10위권 내 부상 = 2018년 중소기업 수출은 화장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이른바 '3대 품목'이

전년대비 2.5% 증가 1087억 달러 수출기업도 9.5만 개... 역대 최대 제조 품목·수출국도 고루 증가세
車부품·기계·반도체는 뒷걸음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24.8% 증가한 46억 달러에 달했다. 한류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장품 수출액은 2010년에 비해 11.4배, 전년에 비교해선 1.2배 늘어나면서 자동차부품을 제치고 수출 2위 품목으로 올라서기까지 했다. 평판 DP(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반도체제조용 장비도 처음으로 상위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했다. 평판 DP 제조용 장비 수출액은 63.7% 증가, 2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분야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의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증설 수요가 늘면서, 대(對) 중국 수출이 120.6% 늘어난 25억 4000달러를 차지했다. 반도체제조용 장비는 전년보다 28.4% 많은 29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수출은 8.5% 감소, 43억 달러에 그쳤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투자가 전기차에 몰리면서 기존의 자동차 엔진 등의 신규 개발 수요가 감소한 데다, 중국에서 한국 완성차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부품 수출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기타 기계류 수출은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15.9% 감소한 27억 달러, 반도체는 스마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순위	품목	수출액	증감(%)	비중(%)
1	플라스틱 제품	5,080	-2.8	4.7
2	화장품	4,649	24.8	4.3
3	자동차부품	4,349	-8.5	4
4	합성수지	4,046	10.7	3.7
5	반도체제조용장비	2,924	28.4	2.7
6	평판DP제조용장비	2,889	63.7	2.7
7	기타기계류	2,747	-15.9	2.5
8	반도체	2,682	-5.4	2.5
9	철강판	2,575	6	2.4
10	계측제어분석기	2,566	-4.9	2.4
합계		34,507	5.8	31.7

중소기업 제품 주요 수출국

국가	수출액	증감(%)	비중(%)
중국	25,923	11.2	23.8
미국	12,500	5.1	11.5
베트남	10,565	-15.3	9.7
일본	10,342	4.8	9.5
홍콩	4,697	-5.4	4.3
인도	3,024	-1.0	2.8
대만	2,770	8.2	2.5
인도네시아	2,551	-1.3	2.3
태국	2,393	3.1	2.2
러시아 연방	2,302	15.3	2.1
합계	77,067	2.7	70.9

트폰용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5.4% 감소한 27억 달러로 나타났다.

◇중·美 수출 역대 최대... 국가별로 고루 늘어나 = 주요 수출국들에서 고른 성장세가 나타났다. 중국(11.2%), 미국(5.1%), 일본(4.8%) 등 기존의 주력 시장과 대만(8.2%), 태국(3.1%), 러시아(15.3%)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2016

년 이후 3년 연속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 미국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다. 중국 수출액은 역대 최고액인 259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유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주력인 자동차부품 수출은 줄었지만 화장품과 원동기어·펌프 수출이 늘어났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수요에 따

라 레일·철구조물 등 관련 품목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데 힘입어 4년 만에 100억 달러를 다시 돌파, 103억 달러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10위권으로 재진입한 점도 눈에 띈다. 러시아는 올해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 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수출보다 소비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기업환경 개선·신산업 경쟁력 제고도 필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강연

“이제는 수출을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삼기 어렵다. 소비를 진작해 성장을 이끌게 해야 한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19년 주력 제조업의 전망과 정책과제' 강연회에서 한국 경제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소비 진작'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장은 “최근 수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수출, 정부지출, 소비, 투자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만큼 거시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소비 진작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원장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하고,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입품을 많이 쓰면 소비가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국내 기업의 제조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산업별 정책으로 △노후 차 교체 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지원금 확대 △석유제품 유통시장 구조 효율화를 통한 소비 확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교육용 기자재 투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과 함께 법·제도 정비, 금융, 규제 완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주력 제조업의 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 등 제반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고부가산업, 유망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제품은 가성비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브랜드로는 선진국에 밀려 샌드위치에 돼 있다”며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중기 과제로 적극적인 신흥 개도국 수출 시장 발굴과 산업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장 원장은 올해 한국 제조업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미·중 무역마찰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는 중이다. 국내 여건 또한 경기가 부진하고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며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사업은 조선과 반도체, 2차전지 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당신의 봄

대한민국 당뇨인의 천만다행을 위해

천만다행

흔치않은 힘듦고 어려운 당뇨관리 내 손안의 든든한 당뇨 주치의 마이헬스노트가 있으니까, 천만다행!

당뇨병 고객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마이헬스노트 앱

자가관리 서비스: 혈당기록, 자동 칼로리 계산, 걸음 수 측정기 편리
건강정보 서비스: 영양, 수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정보 제공
전문요코칭서비스: 강북삼성병원 당뇨전문센터 자문을 통한 맞춤상담
무료 이용 서비스: 삼성화재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당뇨병 보유 고객이면 무료 이용 가능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이스타항공, 'B737맥스8' 2기 오늘부터 운항 중단

정부와 이스타항공은 12일 국내에서 운항 중인 이스타항공의 보잉 737-8(MAX) 2대에 대한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최근 5개월 사이에 2건의 대형 항공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최중구 이스타항공 사장은 12일 면담을 통해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B737-8(MAX) 항공기 운항을 13일부터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면담에서 B737-8(MAX)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최 사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5개월새 해외서 2대 추락 사고... 안전 담보될 때까지 중지
국내 항공사 94기 도입 계획... 정부, 조사관 투입 비상점검



B737-8(MAX) 항공기 운항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항공기 운항중지 조치로 인해 예약 승객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대체 항공기와 타 항공사 운항편으로 분산해 수용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안전성 우려로 운항을 잠정 중단한 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싱가포르 등으로 계속 추가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10일 이스타항공에 대해 운항 전 철저한 점검, 무리한 운항금지, 비행 중 운항 상황 감시 철저 등 긴급 비행 안전지시를 발령했고 그 이행 실태를 확인했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 항공기 조종계통, 전자장비 계통 등 정비 실태 및 조종사 비상대응 절차, 교육훈련 실태 등 정비 및 조종 분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시행 중이다.

B737맥스8 기종은 국내에서 이스타항공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연말 국내 최초로 737-MAX 8을 도입했

고, 올해 1월에 2호기를 들여왔다. 연내 4대를 추가해 총 6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30대를 들여올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6월부터 연말까지 4대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8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18년 11월 보잉과 5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부터 인도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B737-8(MAX)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 진행 과정과 미연방항공청 및 항공기 제작사(보잉), 해외당국의 후속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안전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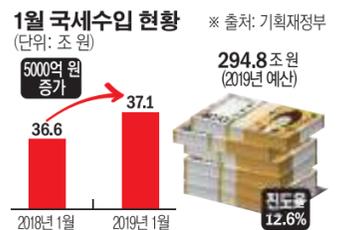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문 대통령, 말레이 한류·할랄 전시회 방문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쿠알라룸푸르 원우타마 쇼핑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 한류존에서 배우 하지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1월 예산 5.2조 더 썼는데 세수 6000억 증가에 그쳐

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
진도율 작년보다 1.1%p ↓



연초부터 세수가 불안한 모습이다. 올해 예산에서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1% 늘었지만,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수 진도율도 소폭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수입은 51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 원(1.2%)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7조1000억 원으로 5000억 원 늘었다. 단 진도율은 12.6%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P) 하락했다. 예산의 국세수입은 268조1000억 원에서 294조8000억 원으로 9.1% 늘었지만 1월 국세수입이 1.4% 느는 데 그쳐서다.

세목별로 1월 소득세는 9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0.7%p 하락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1조2000억 원이 견뎠다. 기타 세목은 5조5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1월 세수가 정부 스케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과다하게 설정됐다거나, 특정 세목이 특별하게 덜 견뎠다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현재까지 2019년 예산에

맞게 국세수입이 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흡한 세수와 달리 총지출은 4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의 결과다. 본예산 289조5000억 원 중예산 29조6000억 원(10.2%)이 집행됐다. 이는 1월 계획인 24조4000억 원(8.4%)보다 5조2000억 원(1.8%p) 초과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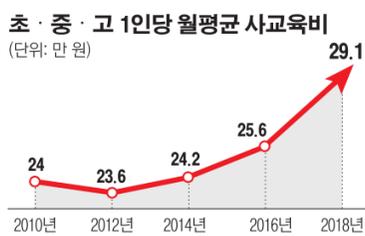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구운철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1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질행 관리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1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 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기인해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관리재정수지는 8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작년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월 29만원

총 19조5000억 4.4% ↑
사교육 참여율은 72.8%



지난해 1년간 지출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가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7.0% 늘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초등학교가 5.2%, 중학교는 3.5%, 고등학교는 3.9%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9만1000원으로 7.0%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26만3000

원으로 3.7%, 중학교는 21만2000원으로 7.1%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32만1000원으로 1년간 증가율이 12.8%에 달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초등학교는 82.5%로 0.1%p 내렸으나, 중학교는 69.6%로 2.2%p, 고등학교는 58.5%로

2.6%p 각각 올랐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으로 4.6% 늘었다. 초등학교는 31만9000원으로 3.9%, 중학교는 44만8000원으로 3.7%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54만9000원으로 7.7% 늘었다.

사교육 목적별로는 일반교과의 경우 학교수업 보충이 4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선행학습(21.3%), 진학준비(17.5%)가 뒤를 이었다.

한편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이 77.6%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로는 인천(4.6%p), 충남(6.5%p), 전남(4.5%p)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15개 상조업체 폐업 위기... "고객 '내상조 그대로' 이용하세요"

이달 자본금 15억 미만 등록 취소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종전과 비슷한 조건의 상조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 이달 중 지자체별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으로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조업체는 하늘지자장례토털서비스·히든코리아·대영상조·아너스라이프·에스라이프·클로버상조(서울), 사임당라이프(부산),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삼성문화상조·미래상조119·삼성개발(대구), 삼성코리아상조·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지산(충북) 등 15개사이다.

이들 상조업체 가입 고객은 약 7800명이다. 해당 고객은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자신이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종전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이며 이들 업체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폭발물 제작·청산가리 판매 정보 등 4200건 접수

작년 불법 유해 신고 3배 증가

지난해 인터넷에서 폭발물을 제작하는 영상이나 청산가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 신고 건수가 4200여 건에 달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불법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151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재료로 사제폭발물을 제조하거나 구매자 정보 확인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해정보를 화학물

질안전원에 신고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유해정보는 1만6749건이었다. 지난해 유해정보로 의심돼 신고한 건수는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3320건, 개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878건이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시 구매자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0곳을 지방환경청에 통보했고, 이 중 7곳이 고발 조치된 상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학 화학물질 전공 학과 및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원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 "화학물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美 대북특별대표〉

비건 “모든 핵 한번에 제거해야”… 북핵 협상 원상복귀

‘일괄타결’ 통한 빅딜 北 압박
문정인 “金, 서울답방 쉽지 않아”
문 대통령, 설득 카드 없어 고심



스티븐 비건(사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핵 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서 “북한은 WMD(대량살상무기) 제거에 대해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못 박았다.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한 번의 일괄타결을 통한 ‘빅딜’로 끝내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빅딜’ 선택을 압박받는 상황이 돼 존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비건 대표는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PV)를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하고 긴

밀한 대화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선봉에 나선 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후속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외교·안보상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한미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특히 정 실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미 정부가 제재 틀 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에 대해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고 못 박으면

서 김 위원장을 설득할 문 대통령의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민에 빠졌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한 진위와 북미 하노이 담판 ‘노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이 돼야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1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고 북미의 입장과 요구를 다 점검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대화) 너무 딜레이되면 모멘텀을 잃는다”며 “지난해 5월처럼 판문점 같은 곳에서 남북 정상은 만날 수는 있으나(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으로 사실상 3월 한미 정상회담이 물 건너간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먼저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동민 기자 lawsdm@

당정청 “국가 교육위 설치”

이달 내 법안 발의… “일관된 교육 정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장기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달 발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조정권적·조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 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승래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교육부 차관 및 시도 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위원 2명 포함) 등이 참여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조 의장은 “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대입 정책 등 국가 교육제도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 기자 jhj@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홍영표(뒷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나경원 발언에 국회 아수라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인위적 재분배 정책에 경제쇼크”
與 “윤리위 제소” 野 “민주당 사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 하지만 진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 3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

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실패가 자명하다”며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 방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3법(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 혼란 중단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밀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상 앞으로 가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연설이 한동안 중단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회에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당은 연설 방해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사진 찍을 땐 환하게
“김치~” 해야 하니까
김치만 떠올려도 행복해야 하니까

김치는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김치 종가집

주가하락·손해배상

보잉 '사면초가'

설계변경·주문취소

'B737맥스8' 연이은 사고에 시총 34兆 증발... 中 주문취소편 막대한 타격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6개월 새 두 차례의 치명적인 사고로 인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내몰리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는 보잉 주가에 대한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보잉 주가는 이날 장 초반 12%까지 폭락해 순식간에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약 34조 원) 증발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여파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저비용 항공사(LCC) 라이온에어 소속 여객기가 추락한 데 이어 10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에서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운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터지자 투자자 사이에서는

보잉의 베스트셀러 기종인 '737맥스8'이 더 이상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졌다.

다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맥스8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공지사항을 발표하면서 불안은 다소 진정됐다. 보잉 주가는 낙폭을 줄여 전 거래일 대비 5.3% 급락한 400.0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사고로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중국 항공당국은 자국 항공사들에 문제의 737맥스8 기종 운항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고처럼 새로 설치된 안전장치인 '조종특



성향상시스템(MCAS)' 문제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FT는 737맥스8의 사고가 2013년 보잉의 최신 여객기 '787드림라이너' 운항 정지 악몽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6년 전 787드림라이너

가 취항하자마자 리튬이온배터리 결함으로 곳곳에서 기능 고장을 일으키거나 비상 착륙하면서 FAA는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이후 보잉이 설계를 전면 수정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기까지 4개월간 드림라이너는 하늘을 날 수 없었다.

WSJ는 이번 737맥스8 추락 사고로 보잉이 높은 비용의 정밀 검사와 기체 설계 변경,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사들의 손해배상 청구, 주문 취소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를 울렸다.

컨설팅업체 틸그룹의 리처드 아블라피 아항공산업 애널리스트는 "현재는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서 모든 사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며 "운항 중단은 비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생산 중단 등 모든 일이 가능하

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운항 중단을 결정하면서 보잉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두 곳에서 737 기종이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중국 항공사들은 100대 이상의 737맥스 시리즈를 주문한 상태이며, 올 1월까지 보잉이 고객사에 인도한 350대 중 17%가 중국에 납품됐다. 만일 중국이 주문을 취소하면 보잉이 받는 타격은 막대한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도 라이온에어가 201대를 주문했으며 그중 14대는 이미 운항 중이다. 가루다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한 대의 737맥스를 받았으나 추가로 49대를 주문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제주항공도 737맥스 기종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블렉시트 수정 합의... 한숨 돌린 메이

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날 영국과 EU 측은 블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된 '안전장치(백스톱)'에 대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영국 하원은 12일 정부와 EU의 블렉시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스트라스부르/AP연합뉴스

<이스라엘 네트워크 업체>

엔비디아, 델라눅스 69억 달러에 인수

인터넷 보안·데이터 수요 급증 대비... 美 반도체업체 사상 최대 M&A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가 자사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네트워크 업체 델라눅스 테크놀로지를 69억 달러(약 7조7942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반도체 업체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가 성사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델라눅스는 데이터센터 서버와 스토리지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성능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 등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안·클라우드 등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델라눅스의 매출은 11억 달러(약 1조2417억 원)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가상화폐 거품이 꺼지자 사업의 초점을 데이터센터 쪽으로 옮기기로 한 엔비디아가 델라눅스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엔비디아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의 컴퓨터 사용자들은 물론, 글로벌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강화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FT는 입찰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와 인텔이 경쟁전을 벌이다가 결국 엔비디아가 델라눅스를 최종 인수하게 됐다"며 "엔비디아는 델라눅스를 주당 125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델라눅스 인수전에서 패한 인텔은 이스라엘 최대 외국인 투자자 중 하나다. 두 달 전에도 이스라엘에 110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에는 컴퓨터 보조 및 자율주행 차량 센서 카메라업체인 모바일아이틀 153억 달러에 인수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주식 애널리스트 마크 리파시스는 FT에 "이번 인수를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며 "델라눅스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던 대역폭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일본식 지배구조 개혁"... 美 헤지펀드, 도시바 정조준

지분 5.4% 보유한 킹스트리트, 6월 주총서 사외이사 절반 물갈이 예고

일본 반도체업체 도시바의 대주주인 미국 헤지펀드가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행동주의 투자자' 펀드인 킹스트리트캐피탈매니지먼트가 도시바 이사 절반을 물갈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이신문이 보도했다.

킹스트리트는 전날 도시바의 구루마타니 노부아키(車谷 暢昭)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시바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외이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킹스트리트는 사외이사를 얼마나 추천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도시바 전체 이사 12명의 절반인 6명가량이 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200억 달러(약 23조 원) 자산을 운용하는 킹스트리트는 도시바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브라이언 히긴스 킹스트리트 공동 설립자 이외 다른



일본 도쿄의 한 거리에 도시바 간판이 걸려 있다. 도쿄/EPA연합뉴스

사외이사 후보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금융과 구조조정 등의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시바는 올해 4월 고위험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해 비용을 대폭 절감할 방침이지만 킹스트리트는 현 이사진으로는 그런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킹스트리트는 서한에서 "도시바가 사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직원의 잠재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면 새로운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사 교체는 일본 산업 재건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대

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킹스트리트는 지난해 10월 도시바가 최소 1조1000억 엔의 자사주를 최대한 빨리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도시바가 향후 1~2년 안에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100쪽 이상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했다.

도시바에 투자한 펀드들 사이에서는 도시바가 내년 3월 마감하는 중기 경영 계획에서 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 킹스트리트 이전에도 다른 펀드들이 사외이사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시바는 킹스트리트의 요구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올바른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사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자를 선정해왔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응하고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터키 '경기침체' 진입...에르도안 리더십 흔들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앙카라/AP뉴스

터키 경제가 침체에 진입했다. 터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4% 하락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앞서 터키 경제는 같은 해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1.6% 위축,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를 견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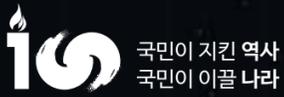
터키의 경기 침체 원인으로 영국 BBC 방송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가장 먼저 꼽았다. 미국과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터키 통화인 리라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해 수입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지난해 달러화 대비 30% 폭락했다. 이에 터키로 들어오는 수입산 제품의 가격이 평균 30% 이상 올랐다. 그 결과 터키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조치에 나섰다. 터키 시민들은 더 비싼 대출 이자를 물어야 했다. 자동차와 주택 판매도 영향을 받았고 제품 생산도 타격을 입게 됐다.

이외에도 미국과 터키는 다양한 이슈를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터키 이웃 나라인 시리아에서의 이슬람국가(IS) 퇴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입하려는 터키의 계획도 미국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또 2016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실각시키려다 실패한 쿠데타의

음모자 처벌을 두고도 맞서고 있다. 터키는 또 테러와 스파이 행위로 기소돼 미국에 머물고 있는 터키 성직자 팻홀라흐 칼렌의 자국 송환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터키의 2018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며 2017년 성장률 7.4%에서 상당히 꺾인 수치라고 BBC는 분석했다.

이번 우울한 경제지표는 터키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이달 지방선거를 치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핵심 지역인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명정 기자 0jung2@



최익형 김학설 차병희 김태원
문석봉 유동하 정준서 최현배
박영준 유석현 김도현 채기중
고광순 방승희 박 결 김태오
최병영 송병순 이원직 권석도
구연영 최중호 김지환 김창환
이학순 차병희 정인순 이대규
김병록 정준서 김석창 정서순
금기철 김도현 김관오 이재운
서의배 박 결 윤세주 신창룡
조윤하 이원직 이 준 윤세복
김진준 김지환 이충증 최도환
진희창 정인승 이관석 여행열
연병호 김석창 박찬익 박상진
김정원 김관오 이명상 김상덕
유장원 윤세주 이세영 주명우
이 설 여 준 이유필 문상의
주석환 이충증 문일평 권기운
이종건 이관석 김이원 최지관
권래백 박찬익 김태원 한 훈
김중현 이명상 양우조 유해준
홍준우 이세영 김한수 이병직
천병림 이유필 고운기 정철화
최육영 문일평 유영규 백시찬
신태식 김이직 오성술 신발규
이희삼 김태원 최천호 최용덕
김덕재 김학설 유홍수 아규창
김진성 유동하 정순경 박시화
이희경 유석현 이시영 장봉환
조정인 방승희 홍석호 이종수
문인민 송병순 윤인석 홍종남
안국형 최중호 김준택 민영규



양윤숙 신건식 김명권 한상별
선우희 김시중 유득신 계동우
최세윤 지석용 김 강 이희영
이광민 홍사구 김승곤 김보형
최병수 정태희 유기동 윤창하
김 호 광중규 임의환 모의리
최시훈 김순애 김홍일 조지영
남석인 박인항 박문용 문창환
이재모 김태원 박도경 최양욱
정동식 전용선 양기하 김평식
이상정 장진홍 안 무 신덕영
조인재 영주필 이용담 나월환
고인덕 현 순 천세현 채 찬
이능권 서중현 한정건 임병규
최창식 김중대 남정각 이광세
이종욱 김 구 박태열 강창재
송계백 정이형 이숙길 비오생
조창선 채세용 이민하 이의준
최수봉 강우경 조용하 이진택
이진우 민용호 이명순 심용준
강기운 정용대 안경신 임병직
장인호 정인규 이강신 안중근
박용백 고창일 오의선 윤세용
이희의 백우한 신 숙 허 빈
조병오 이화일 양경학 강순필
김우근 이종연 노을름 송현주
강영규 김기현 김준승 허 위
황학봉 서상고 이 강 김낙용
임창모 김기형 전덕령 임하중
이강년 이형우 최규동 손덕오
나시윤 우승창 김치홍 황병학
민효식 김철남 조만식 김병조



김경운 윤병구 노종균 이필봉
이관직 신우현 양승우 노복선
김봉학 이규갑 전덕원 채 영
황창오 양환규 최영길 함태영
신창룡 이소영 민필수 유화순
김일원 이은영 장태수 이희순
여순근 유민식 장태규 이명하
이상만 전좌환 백정기 한성규
윤인순 강경선 윤 해 김용규
신인성 김동진 권영만 권용일
이충영 안운성 남중선 현창경
정우경 장지연 민양기 이정봉
이 기 신언준 김대지 이중봉
김규식 이수훈 강철구 김좌진
남궁익 양근환 박승길 변춘식
이승만 박재원 이봉희 오광삼
순영각 이숙호 홍찬선 노병대
장철호 이상화 김석환 오상서
진치연 고두환 이성규 이석이
곽태기 윤이병 안경호 이영준
김진택 신승식 김수민 서상원
이중용 백낙주 박시화 김성수
김덕순 노임수 조진택 이희운
김승만 조창호 서영석 양세동
유운홍 이봉우 함용운 정두환
김덕홍 김상우 장해평 임용상
최소양 오연희 임성우 박희광
조소양 문운국 윤봉길 조병두
김도원 장두량 강창호 오상원
최관용 나정규 강윤희 박인호
백남규 한봉수 유상근 이건설
조종대 우동선 태양욱 이종암



장덕준 조창룡 조원세 김두만
김광진 안희제 홍 진 강원삼
김근희 신정백 조병옥 강원형
이만도 이애라 황준성 박경순
신석우 차희식 엄소봉 박경순
김약연 이종진 최일문 김이걸
이종희 김성연 이종연 차병재
홍원식 장 형 김의환 이종희
양기탁 박문용 고 평 홍춘희
장진원 이종호 장영희 이명규
성인환 박여성 순병희 윤신은
김용성 홍 언 김일수 김봉식
장윤덕 김동수 신광재 최이봉
김창숙 정태진 최용선 김원범
김원국 이광복 김성근 한정만
유 립 김영현 김 석 이창덕
이흥관 김관보 서재필 이광호
김원식 이흥서 최익룡 주기철
김원규 이흥선 최익룡 주기철
황원규 유관순 지용기 김태량
권인규 나형현 박건순 김태원
김명철 석동철 채용현 강재하
최은식 임병한 김병대 이만두
김창국 박기성 안광근 이기승
한봉근 한상호 정봉준 신익희
나중소 안창호 백일규 김희삼
김명원 김이철 서상용 최화암
기우만 유성삼 객재기 고이허
안영근 이규선 이종진 최성천
김수곡 안봉순 박기재 최기선
기삼연 전덕기 최석준 원삼창
조병세 이명서 이인금 신현규



유도발 조길룡 차병수 이기순
김대규 원세훈 유병기 이현규
박중서 이성우 강진원 박세화
송주면 장관주 김 혁 이진영
김영만 임병주 노태준 장소진
심남일 송학식 이종희 염운주
이성화 윤병기 이 현 이희주
윤상원 유인식 김재근 서원준
김 최 한이경 김승배 김학규
이순모 이항구 이상룡 김창근
김성택 이교영 김원호 이 갑
김용재 김진만 이우식 손창숙
이철형 이 광 황덕환 문창숙
윤준희 조희선 이원만 박인화
조도선 변희기 안원규 노기용
김한중 안세환 김만수 우덕순
백기환 이병호 박치의 정용기
김성호 최 해 오봉원 서상환
오강표 주병용 전학수 김상태
김성호 최 해 오봉원 서상환
조명하 차원모 이대원 김인진
황재은 김원범 최나현 채광목
이규재 황병길 구에서 정봉화
강기덕 민중로 현익철 정찬조
오동진 이 탁 서 일 김석진
김태원 이강훈 나병삼 송병조
최익현 홍민식 추삼만 김병우
홍성용 장덕진 조인환 이병하
정남용 박운실 안승우 이교재
권순영 안재환 신우여 김 훈
김교희 안지호 송종의 홍병식
장원성 김치보 영성섭 윤덕보
김창규 유영오 유시연 이항룡



2019

100년을 이어주는 영웅들의 이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으로도 지울 수 없는 역사의 **메모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분들에 대한 기억을
국민 모두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교보생명〉

“공동 매각 안 한다”... 신창재 회장, 경영권 방어 총력전

FI에 새 협상안 제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에게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권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들 FI연합이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FI연합에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을 통한 자산 유통화 방안을 제시했다. FI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기업공개(IPO) 후 차익을 보전해줄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가 협상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동매각설’에 대한 선 기기로 풀이된다. 신 회장과 그의 누나(특수관계인)가 가진 지분 36.9%와 FI가 들고 있는 지분 29.3%를

ABS 발행·3자 매각 등 제안 불구

차익 실현 어려워 합의 미지수

“경영권 잡고 있는 한 갈등 지속”

다해 금융지주사에 공동 매각하는 게 후문의 끝자다. 신 회장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신 회장 대리인 자격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금융지주사를 만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접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임원의 독단적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 회장이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신 회장은 최근 임원 회

교보생명-FI연합 분쟁 일지

2011년	대우인태내셔널 교보생명 지분 매각.
2012년	3년 내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어퍼니티 등 FJ 지분 매입.
2015년	IPO 약속 시한 만료.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교보생명, IPO 추진 보류. 11월 FI연합, 신 회장 상대로 풋옵션 행사 예고. 12월 교보생명, IPO 추진 결정.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FI연합, 신 회장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 신청 예정. -신 회장, FJ상대로 풋옵션 계약 무효 소송&인진회계법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정.



의에서 “IPO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을 제거하고, FI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상의 문은 열어둘 것”이라며 “직원들은 중요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FI연합이 받아줄지 여부다.

ABS 발행부터 살펴보면 신 회장은 채권 기초자산을 FI 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 회장이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FI 지분을 떠넘기는 방식이다. ABS 투자자들은 이자와 동시에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신 회장은 경영권을 보장받

고, FI연합은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업 침체로 차익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에 나설 곳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FI 지분 제3자 매각은 방식(SPC를 거치지 않는)만 다를 뿐 첫번째 협상안과 동일하다. 마지막 제안인 IPO 역시 녹록지 않다. FI연합과의 분쟁이 봉합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문턱도 넘을 수 없다. 교보생명이 이날 예정된 해외 투자설명회(NDR)를 순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신 회장이 전형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영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FI와의 갈등은 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신한·삼성·롯데카드, 현대차에 ‘백기 투항’

유통·통신업계 ‘가능자’ 될 듯

신한·삼성·롯데카드가 현대자동차 카드 수수료를 제시안을 결국 수용했다. 이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조정 협상이 자동차 업계에 이어 유통과 통신업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는 이날 오후 현대차가 제안한 카드 수수료율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인상 조정안을 수용하고 이를 현대차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현재 현대차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가 ‘언제 현대차 제시안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나 진행 상황은 구체

유통·통신 부문 카드 수수료율 인상 전망	* 출처: 각사	
	기존	인상
유통	1.9~2.0%	2.1~2.2%
통신	1.8~1.9%	2.0~2.1%

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카드사 3곳의 수용 의사를 통보 받고도 즉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제시한 카드수수료율 1.89%보다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현대차의 최종 수용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카드사가 현대차 제시안을 받아들인 만큼 기존 협상안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와 카드사는 각각 0.1% 인상과 0.01% 인상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현대차가 8일 카드사에 0.05%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BC카드는 현대차와 협상

유예기간을 둔 끝에 전날 1.89%에 합의했다. KB국민과 현대, 하나, NH농협, 씨티카드는 현대차 제시안에 일찌감치 협상을 완료했다.

카드사는 업계 1위와 2위 업체인 신한과 삼성카드가 현대차에 사실상 ‘백기 투항’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통업계와 통신사와 합의에도 불리한 위치에 설 전망이다. 이날 신한 등 3개사까지 현대차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대형마트와 SKT 등 주요 통신사들과의 협상이 시작된다.

카드사는 이동통신 3사에 수수료율 0.2% 인상을 통보했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도 0.1~0.2%대 수수료율 인상안을 통보했다. 하지만 카드사가 현대차와 수수료율 0.05% 인상에 합의한 이상 다른 업권과 협상에서도 0.1% 이상 수수료율을 올려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산은·수은, 부산행? ... 지방 이전 개정안 발의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 발의를 주도한 것은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9년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지정했다. 지리적 특성과 조선·해운·물류산업의 강점을 살린 조치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들이 서울에 있어 기관 간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산 또한 금융 중심지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1항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제3조 1항이다. 각각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둔다’,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서울특별시

를 부산광역시로 바꿔 본점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 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 경제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법을 통해 부산 금융 중심지 완성과 더불어 남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현·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 등 19명이 참여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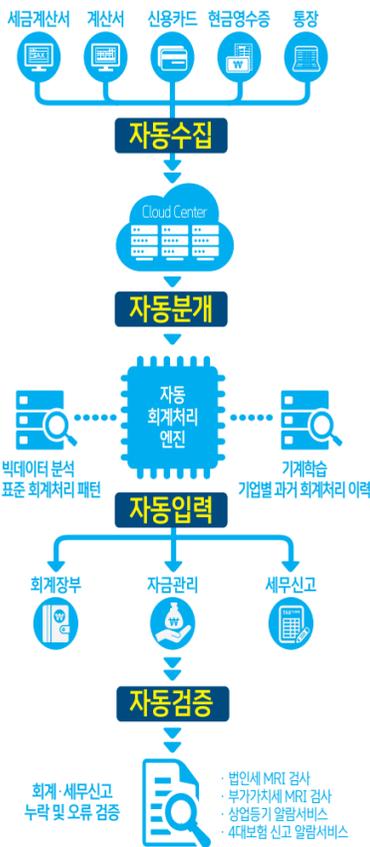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동관리
-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갤S10, 도쿄올림픽 기기 '日 아이폰 천하' 깬다

**하라주쿠에 세계 최대 매장
日, 내년 올림픽 5G 상용화
준비된 삼성, 시장공략 시동
작년 아이폰 판매 11% 감소**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천하인 일본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 글로벌 스마트폰 1위인 삼성전자가 유독 힘을 못 쓰는 나라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갤럭시S10' 출시와 내년 도쿄올림픽 등을 기회로 삼아 스마트폰 점유율 높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에서 갤럭시 쇼케이스 '갤럭시 하라주쿠(GALAXY Harajuku)'를 1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하라주쿠'는 지상 6층-지하 1층 규모로 전 세계 갤럭시 쇼케이스 중 최대 규모다. 1000개 이상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꾸며진 건물 외관은 '부유하는 빛의 레이어'라는 콘셉트로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다.

'갤럭시 하라주쿠'에서는 삼성전자의 휴대용 혁신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갤럭시S10 등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과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또 일본 내 통신사업자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갤럭시 기기의 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향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다채롭고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소개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하라주쿠 오픈을 계기로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시장은

애플이 점유율 50% 이상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물러 있다. 2013년 10.7%였던 점유율은 2014년 5.6%, 2015년 4.3%로 하락하다가 2016년 3.4%까지 내려앉았다. 최근 분위기는 썩 나쁘지 않다. 2017년 5.8%까지 올랐고 지난해 4분기에는 6.8%의 점유율로 4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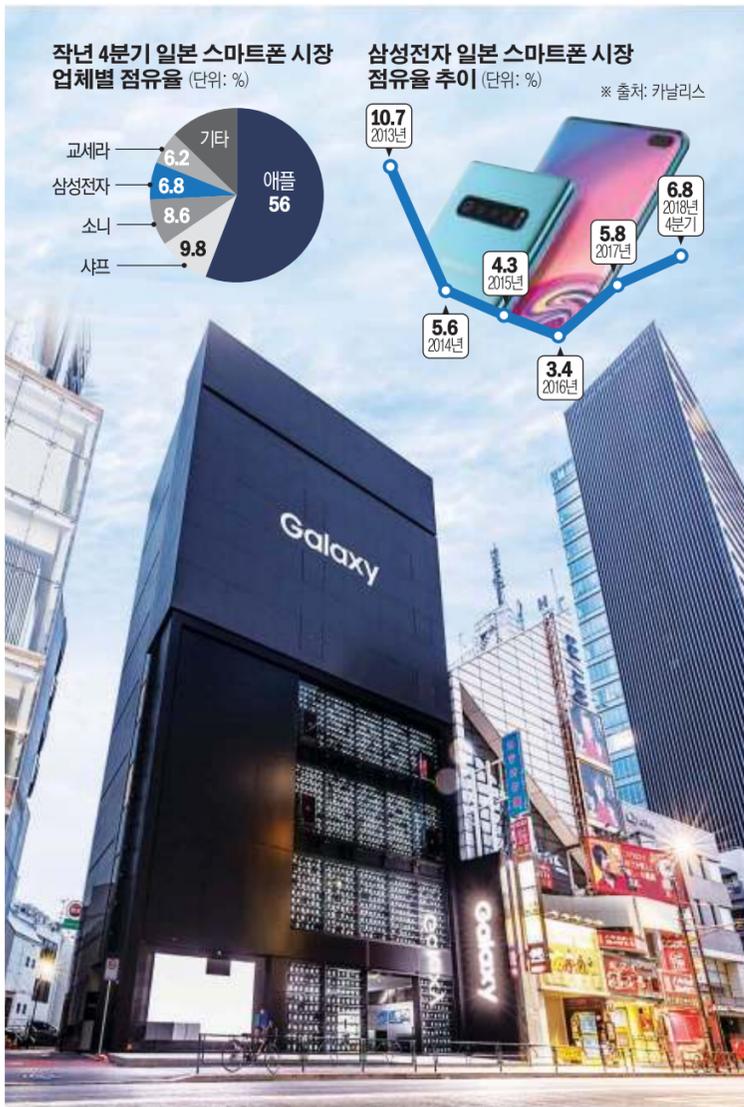
특히 지난해 아이폰XS 시리즈가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으며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5% 줄었다. 여전히 56%로 압도적이지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무선통신, 컴퓨팅 장비 분야 공식 파트너인데,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5G 상용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5G 스마트폰 시장 대응이 더 빠르다. 삼성전자로서는 올해와 내년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5G 시대를 선도하는 무선통신 분야의 공식 파트너로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 주요 시장인 만큼, 삼성전자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라며 "특히 일본은 애플과의 격전지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전자가 12일 일본 도쿄에 개관한 갤럭시 쇼케이스 '갤럭시 하라주쿠(GALAXY Harajuku)'.

국제 금융통 문흥성 두산 전략담당 사장에

재무위기 돌파 큰 그림 그릴 듯

문흥성(사진)두산DLI 사장이 (주)두산의 전략담당 사장으로 복귀했다. 문 사장이 향후 두산그룹 경영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문 사장은 11일부로 두산DLI 전략지원실장에서 (주)두산 VM(Value Management) 부부장 사장으로 직함을 바꿨다.

DLI는 (주)두산이 41.9% 지분을 가진 계열사로 두산그룹의 경제연구소 역할을 하며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회사다. VM은 (주)두산의 경영전략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주)두산의 경우 두산그룹의 지주회사로 그룹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봤을 때, 문 사장의 인사 발령은 사실상 승진 인사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 사장은 2010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그해 3월 두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당시 문 사장 영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에 전무로 영입된 문 사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 전략지원실 부사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두산그룹 계열사인 DLI로 다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문 사장은 향후 두산그룹의 재무위기 돌파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지배구조 최하단에 위치한 두산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비 적자 전환했고, 당기순손실 5518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 중간지주회사 격인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 지원에 나섰고, (주)두산이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 사장은 국제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등을 거치며 국내 외화자금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문 사장은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실 선임행정관(국장급) 등을 지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현대차·SK텔레콤 MOU 고객 응대용 로봇 만든다

현대자동차가 SK텔레콤과 함께 고객 응대용 로봇을 개발한다.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은 11일 경기 화성시 소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서비스 로봇 개발을 위한 양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간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자동차 조성환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 현동진 로보틱스팀 팀장과 SK텔레콤 김운 AI센터장, 유용환 SV 이노베이션 센터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 전 시장에 시범적으로 배치될 고객 응대용 서비스 로봇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의 로봇 인공지능 플랫폼 '달이(DAL-e)'와 SK텔레콤의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NUGU)'가 결합해 개발될 서비스 로봇은 고객들과의 음성 대화를 기반으로 고객맞이, 차량 설명 등의 기능은 물론 음악이나 날씨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도 장착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삼성전자(왼쪽)와 LG전자 모델들이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하프코 2019'에서 양사의 공조 솔루션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각사 제공

삼성 산단 송전선로 지중화 합의 평택 주민 위해 482억 추가 부담

송전탑 5년 갈등 일단락

수년째 고착됐던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문제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해결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 체결을 통해 약 4000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와 삼성전자, 안성시 원곡면 주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상생협력(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경기안성)의 중재로 이뤄졌다. 세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부터 평택 고덕 삼성 산단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성 원곡면 일원에 송전탑을 세우려 했지만,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송전선로가 건립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아차 2020년형 K5 출시

기아자동차가 상품성을 강화한 2020년형 K5를 선보였다. 기아차는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인 2020년형 K5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형 모델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및 소비자 선호 사양을 확대하면서도 합리적 가격을 책정해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력 모델인 2.0 가솔린은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차량 전방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

이후 수십 차례 열린 협의에도 합의의 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한 산하리 1.5km 구간에 대해 지상 송전탑과 지중화를 위한 지하터널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다.

이후 공사 기간이 짧은 송전탑이 2023년 건립되면 송출을 시작하되, 2025년 터널이 완공되면 송전탑은 철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총연장 23.86km에 달하는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삼성 측이 사업비(3490억 원) 전액을 부담한다. 지중화 건설에 드는 비용(482억 원)도 삼성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삼성은 추후 건설된 3·4공장도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현재 고덕 산단 삼성 반도체는 현재 1공장이 가동 중이며, 2공장은 건설 중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LG, 공기청정 공조기 맞대결

공조전시회 '하프코 2019'

삼성 '국내 최대' 넓이 정화
LG 대장군 제거 기능 장착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세먼지 차단 공조시스템을 선보이며 기술 맞대결을 펼쳤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하프코(HARFKO: Heating, Air-Conditioning, Refrigeration and Fluid Exhibition KOREA) 2019'에 참가해 주력 공조 솔루션 제품을 선보였다. 15일까지 열리는 하프코는 198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공조 전시회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업시설·교육시설 등에서도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정 솔루션을 소개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시스템에어컨 360·1Way·4Way 카세트는 PM1.0(지름이 1μm 이하인 먼지)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 패널을 적용할 수

있어 0.3μm 크기의 미세한 먼지까지 강력하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특히 2월 말 출시돼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4Way 카세트용 공기청정 패널은 국내 최대 면적인 157.4㎡의 넓은 공간까지 청정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 중 가장 넓은 45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인공지능 스마트기류 실내기, 공간별 맞춤형 솔루션, 비컨(BECON: Building Energy Control) 등을 선보였다.

인공지능 스마트기류 실내기는 듀얼 베인(Dual Vane)과 스마트 기능을 적용한 신제품이다. 베인은 실내기에 부착된 날개이며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준다. 듀얼 베인은 기존 천장형 실내기에 설치된 4개 조절 장치와는 별도로 내부에 4개의 조절 장치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정밀하게 바람을 조작하는 게 어려웠으나 신제품은 8개 베인을 사용해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다.

특히 LG전자는 대표적으로 상업 공간에서 사용하는 원형, 4방향 등 다양한 카세트의 천장형 실내기에 PM 1.0 극초미세먼지, 냄새, 대장균까지 제거해주는 5단계 공기청정시스템을 장착해 공간을 쾌적하게 해준다.

권태성 기자 tskwon@

재계·노동계, 기아차 통상임금 타결에 '동상이몽'

상여금 포함한 통상임금 노동계, 사회 전반 확산 여망 소송 기업들 "대표성 못 띠어" 임단협 따라 다른 판결 기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vs "당장에 임단협 내용이 다른 현대차조차 적용이 쉽지 않다."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미지급금 지급에 합의한 것을 놓고 재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전날 '통상임금 특위' 8차 본회의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소송이 제기된 기간의 미지급금(1인당 평균 19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사급 산정 때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의 시급은 약 45% 인상된다. 자연스레 '최저임금'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기아차 '통상임금 특위'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총회(14일)를 거쳐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 역시 지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이번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안별로 사측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존재해 선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관계자 역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예단이 어렵다. 우리(사측)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해 기아차와 상황이 다르다"며 대법원 판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입장을 언급하기는 힘들다"면서 "기아차와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대표성을 띠기는 힘들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기아차 노사 합의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자체적인 소송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기아차의 판결과 노사 합의가 절대적일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측과 노조 측의 임단협 내용이 각각 달라 향소와 상고심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 현대차그룹 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상황도 기아차와 다르다. 1, 2심에 연이어 패소한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와 모비스는 각각 1, 2심 모두 승소한 상태다. 그만큼 회사 측은 심의가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아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1시간당 시급을 올린 것과 달리 현대차와 모비스는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750%에 달하는 상여금을 나눠서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등 3사는 짝수달에 상여금 600%를 지급하고 설과 추석, 휴가 때 50%씩 지급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 관계자는 "(기아차와 달리) 임단협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취급규칙을 바꿔 상여금을 매달 나눠서 지급하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하유미 기자 jscs508@



미세먼지 줄이는 인덕션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12일 '2019년형 삼성 전기레인지 인덕션 쇼케이스 행사'에서 "올해 전기레인지 판매량 목표치는 전년도 판매량의 2배로 잡았다"고 밝혔다. 전기레인지는 오랫동안 가정에서 사용됐던 가스레인지보다 안전사고 위험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선보일 9종의 인덕션은 △최대 7200W(와트)의 강력한 화력 △1개 화구를 최대 네 부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쿼트네 플렉스존' △LED 가상 불꽃 △정교한 온도 조절이 가능한 마그네틱 다이얼 등 차별화된 기능을 갖췄다. 양혜순(오른쪽) 삼성전자 상무와 강민구 셰프가 신형 인덕션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해외 미디어 '신형 쏘나타' 호평

"내·외부 성숙한 디자인 매력적"

최근 공개된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사진) 디자인에 대해 다수 해외 미디어가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인 모터트렌드는 최근 "쏘나타가 눈에 띄게 고급스러워 보인다"며 "내·외부 모두 성숙한 디자인으로 기존 모델보다 더 매력적이고 진보적으로 만드는데 주력한 만큼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분은 주간주행등(DRL)을 결합한 헤드램프였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가이드는 신형 쏘나타의 외관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바로 DRL을 꼽았다.

또 다른 유력 자동차 매체인 카엔드라이버 역시 "디자인으로 다시 한 번 거대한 도약을 이뤘다"며 "특히 지붕이 뒤쪽으로 매끈하게 내려붙은 패스트백 스타일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흥미로운 디자인의 새로운 스티어링 휠, 우아해 보이는 대시보드, 시원한 패턴의 브라운 가죽 등으로 이뤄진 새로운 인테리어는 큰 발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명 자동차 매체인 잘립닉은 "낮고 넓어진 데다 길어지기까지 해 그 어느 때보다 날렵한 느낌을 준다"며 "우리가 싫어할 수 없는 콘셉트"라고 썼다. 기존 쏘나타보다 전고가 30mm 낮아지고 휠베이스가 35mm, 전장이 45mm 늘어난 미래지향적 쿠페 스타일을 평가한 것이다. 이어 "몇몇 메이커가 세단을 포기하고 있는 시기지만 현대차가 여전히 세단에 공들이는 걸 보는 게 즐겁다"라고 호평했다.

신형 쏘나타의 외관에서 주목을 받은 부

하유미 기자 jscs508@

아시아나, 美 서부 A350 운항 인터넷·휴대전화 로밍 서비스

아시아나항공은 31일부터 차세대 항공기 A350을 미국 서부 지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3개 도시에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기종인 A350은 기존 중대형 항공기 대비 확대된 기내 공간과 뛰어난 연료 효율성, 쾌적한 비행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기내 무료 인터넷,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와 함께 앞뒤 간격이 넓어진 '이코노

미 스마트룸' 좌석을 제공해 고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돕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A350 운항으로 미 서부 노선 고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A350 운항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카메라 어플인 SNOW앱 내 아시아나항공 색동이 스티커를 이용해 촬영 및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고객, 아시아나항공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에 게재된 미 서부 3개 도시 영상 감상 후 관련 퀴즈에 응모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 서부 왕복 항공권, 메신저 백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자연의 힘으로
피부를 다스리다**
Uniquemi Premium Mask

유니크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www.uniquemi.co.kr 고객센터 : 1577-9536~7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신한과 오렌지라이프가 만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렌지라이프와 손잡고
국내 최대 금융으로 도약하는 신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금융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하겠습니다

Hope. Together.

함께 만드는 따뜻한 금융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다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3兆 영유아 교육시장 잡아라”...SKB, ‘TV 홈스쿨링’ 강화

B tv 학습 프로그램 ‘플레이송스 홈’ 출시

세계적 음악치료사들과 심리학 교수 등 개발·자문에 참여
음악 통해 영유아 인지능력·발달과정 맞춘 놀이경험 제공

지난해 ‘살아있는 동화’로 영유아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SK브로드밴드가 새로운 서비스를 앞세워 TV 홈스쿨링 사업을 강화한다.

SK브로드밴드는 12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B tv를 통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영유아 학습 프로그램 ‘플레이송스 홈(PLAY SONGS HOME)’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살아있는 동화가 입소문을 타면서 영유아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플레이송스 홈을 앞세워 TV 홈스쿨링 사업을 전진하겠다는 각오다. 미취학아동 대상의 사교육 관련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2000억 원이다.

김혁 SK브로드밴드 세그먼트트라이브장은 “그동안 IPTV의 영유아 콘텐츠 시장이 뽀로로와 같은 캐릭터 중심으로 형성됐

다면 지난해 살아있는 동화를 출시한 이후 교육적인 니즈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객가치 혁신의 일환으로 집에서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이번엔 TV 홈스쿨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TV를 통한 홈스쿨링은 트리모션으로 간단히 동작할 수 있고 △큰 화면으로 가족과 함께 시청이 가능하며 △집집마다 1대씩 모두 보유하고 있어 따로 기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출시한 플레이송스 홈은 만 3세 이하 영유아 대상 홈스쿨링 프로그램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1년간 약 5만 명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음악 중심 놀이 학교를 운영해 온 노하우를 갖고 있는 ‘플레이송스’와 협업해 TV용 홈스쿨링 서비스 ‘플레이송스 홈’을 개발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세그먼트트라이브장이 12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스쿨링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SK브로드밴드

B tv에서 독점 제공하는 플레이송스 홈은 케네스 브루시아 미국 템플대 음악치료학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 음악치료사들과 심리학 교수진 등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개발 및 자문에 참여했다. 그동안 특정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프리미엄 학습 프로그램 플레이송스를 TV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플레이송스 홈은 음악이 영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것에 중점

을 두고 있다. 음악의 다양한 장르와 구성 요소를 활용해 영유아들의 인지능력과 발달 과정에 맞춘 놀이경험을 제공한다.

동시에 언어, 창의력, 오감 등을 아우르는 800여 가지의 창의적 융합놀이를 활용해 발달단계에 맞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내적 통제능력을 키우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350곡의 음악과 10종의 캐릭터가 이끄는 긴밀한 이야기가 뮤지컬 형

식으로 펼쳐져 아이들을 끊임없이 놀이에 몰입하게 한다. 교구재 제작에는 이스라엘의 명품 악기사인 할릴릿(Halilit)이 참여했다.

플레이송스 홈은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 전후까지 6개월씩 총 5단계로 학습 명령을 구분해 단계별로 VOD 24편, 사운드 워크북 및 놀이키트 6종 등 교구재, 도서 세트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문화센터에서 인기가 높은 키즈 커리큘럼인 ‘뽀로로TV 놀이교실’도 B tv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다. 뽀로로TV 놀이교실은 B tv 독점 서비스로 누리과정 기반의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B tv 키즈 콘텐츠 점유율 2위로 성장한 살아있는 동화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살아있는 동화 2.0’도 선보인다. 살아있는 동화 2.0은 기존 아이 1명으로 국한했던 역할놀이 기능을 최대 3명까지 확대했다.

총 12가지 아이의 표정을 출력해 실제 동화책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기능과 아이의 표정을 이모티콘으로 저장, 휴대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침대·가구업체 ‘문화마케팅’에 빠지다

봄 성수기를 맞은 침대·가구업체가 문화 마케팅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트렌드 가구 편집숍 ‘에이스 에비뉴’와 대구 중구에 있는 ‘갤러리 분도’와 협업 프로젝트를 한다. 에이스 에비뉴 대구점과 갤러리 분도에서 동시 공개되는 이번 협업 프로젝트 ‘일상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23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전시에 참여하는 이명미 작가와 임창민 작가는 일상에 등장하는 사물과 공간을 작가 특유의 느낌으로 풀어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탈리아 대표 디자인 가구인 알플렉스, 트렌디한 가죽 소파의 대명사인 박스터, 자연이 선물한 원목 가구 리바1920 등 에이스 에비뉴의 디자인 가구와 작가의 회화, 사진, 설치 작품 등을 갤러리에 같이 전시해 일상생활 속에서 현대 가구와 미술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전달한다.

에이스 에비뉴는 작년 8월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에서 ‘삶 속의 예술전’을 열었고, 2017년 6월에는 출판사 한길사와 협업해 ‘윌리엄 모리스’ 작품전을 진행했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문화 협업은 향후 계속 진행해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체리쉬는 CGV씨네드쉐프 센터시티



에이스 에비뉴와 갤러리 분도의 협업 프로젝트 ‘일상의 풍경’. 사진제공 에이스침대

에이스 에비뉴

‘갤러리 분도’와 협업 프로젝트 디자인 가구·예술품 함께 전시

체리쉬

‘CGV센터시티’에 설치한 제품 SNS 인증샷 올리면 커피 쿠폰

데스커

독서모임커뮤니티 ‘트레바리’와 신사동 매장서 토크콘서트 진행

와 10주년 공동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체리쉬는 2017년 11월 CGV씨네드쉐프 용산아이파크몰과 협업해 영화관

내에 체리쉬 리클라이너와 가구를 설치했고, 그해 12월 CGV씨네드쉐프 센터시티에 전 좌석을 체리쉬 리클라이너로 배치한 살롱S 바이 체리쉬를 선보였다.

체리쉬는 이번에 CGV씨네드쉐프 센터시티 오픈 10주년을 기념해 내달 7일까지 CGV씨네드쉐프 센터시티의 레스토랑에 전시된 체리쉬 제품에 앉아 인증샷을 찍고 체리쉬 가구가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3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 영화관에 설치된 체리쉬 제품과 같은 제품을 할인가에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체리쉬는 살롱S 바이 체리쉬에 설치된 것과 같은 리클라이너 체어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퍼시스의 스타트업 가구 브랜드 데스커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데스커 시그니처 스토어’ 3층에서 첫 토크콘서트 행사를 열었다. 데스커는 독서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트레바리’와 손잡고 ‘트레바리 at 데스커, 마케터 이야기’ 행사를 개최해 국내 인기 수제 맥주 브랜드 ‘제주맥주’ 마케팅실 담당자들을 초청했다.

데스커 관계자는 “2월 열린 토크콘서트는 올해 총 6회 시리즈로 기획한 행사의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 마케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중기중앙회, 말레이시아 구매상담회 개최 김기문(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현지 구매상담회에서 참가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넥슨, 상반기 모바일 신작 대거 출시

‘크레이지 아케이드 BnB M’ ‘바람의 나라:연’ 등 14종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넥슨이 상반기 모바일 라인업을 대거 추가하며 시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넥슨은 12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넥슨 스페셜 데이’ 행사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선보일 모바일 게임 라인업을 공개했다.

김현 넥슨 부사장은 “넥슨은 게임 사업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넥슨이 준비하고 있는 게임을 넥슨 스페셜 데이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올해 상반기 국내외에 출시하는 총 14종의 모바일 게임을 공개했다. 이 중 스피릿위시, 다크어벤저 크로스, 런닝맨 히어로즈, 런웨이 스토리 등 4종은 이미 국내외에 출시돼 서비스하고 있다.

상반기 넥슨이 가장 주목하는 게임은 ‘크레이지 아케이드 BnB M’이다. 동명의 온라인 게임이자 넥슨 자체 IP를 활용한 ‘크레이지 아케이드 BnB’를 모바일로 옮긴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이다.

상대방을 물풍선으로 터뜨리는 원작의 재미는 살리면서도, 3D캐릭터, 신규 게임 모드 등 차별성을 강조했다. 크레이지 아

케이스 BnB M은 지난달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해 현재 약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1일 국내외에 동시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체 IP를 활용한 게임인 ‘바람의 나라:연’도 준비 중이다. 국내 첫 온라인 게임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바람의 나라’ IP를 활용해 개발한 게임이다. 원작 온라인 게임의 조작감과 그래픽 등을 모바일로 그대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트라하’와 함께 RPG 시장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마기아: 카르마 시티’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마기아는 슈퍼에스티가 개발하고 있는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올해 상반기 중 국내외 동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넥슨이 새롭게 선보이는 클래식 판타지 동화풍의 게임으로 캐릭터 간 퀘스트를 따라가며 즐기는 싱글플레이가 장점이다.

국내 출시된 게임들의 글로벌 출시도 이어진다. 우선 ‘메이플스토리M’은 내달 일본 시장에 출시하며 ‘야생의 땅: 듀랑고’는 상반기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인다. ‘오버히트’는 상반기 중 150여 개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B형간염 치료제 내성 가진 돌연변이 바이러스 발견

건국대 김균환·박은숙 교수, 서울대 이정훈 교수 연구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B형 간염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국내 연구진이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건국대 김균환·박은숙 교수와 서울대 이정훈 교수 연구팀이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테노포비어’에 대한 내성 바이러스를 환자한테서 추출하고 내성을 갖게 되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B형 간염 바이러스(HBV)는 만성 간염·간 경화·간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테노포비어가 내성 없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로 꼽혀왔다.

하지만 연구팀은 간염 환자 2명에게서 테노포비어 내성을 갖는 돌연변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테노포비어 내성은 모두 4개의 돌연변이가 동시에 생겨야 나타난다. 이 때문에 그간 발견이 되기 어려웠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김균환 교수는 “테노포비어 내성 돌연변이 특성을 세세히 분석해낸 것”이라며 “서둘러 만성 B형 간염의 새로운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달 20일 유럽 간학회지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Journal of Hepatology)에 게재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코리아 술탄이요? 쏠살같이 다 나갔죠” 중국인의 못 말리는 사랑



<레드 립스틱>



조르지오 아르마니 한정판, 5일 만에 완판
중소비자들 진한 레드 립스틱 선호도 높아
아모레퍼시픽 봄맞이 ‘레드 바이브’ 캠페인

#코리아 술탄이요? 출시 당일 다 소진됐어요. 대부분 중국인들이 다 사갑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기 때문에 조기 품절됐죠.”(조르지오 아르마니뷰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직원)

중국인들의 붉은색, 레드 사랑이 뷰티 립제품으로 변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한한령이 느슨해지는 조짐을 엿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 중인 붉은색 립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뷰티는 지난달 22일 국내 한정판 립컬러로 레드 색상의 ‘코리아 술탄’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한국인에게 어울리는 컬러로 제작됐지만 출시 5일 만에 전량 매진됐다.

제품 이름에도 ‘코리아’가 들어갈 정도로 한국 여성만을 위한 색상으로 탄생돼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지만 오히려 중국인들의 호응이 높았다.

한 백화점 직원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 중국인들이 방문이 달한 교외 매장에는 물량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세계면세점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취향AI음성 검색 서비스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본 결과, 레드 립스틱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취향AI음성검색서비스는 신세계면세점과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 마이셀럽스와 협업으로 개발한 서비스로, 신세계면세점은 올 3월부터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취향 AI음성 검색 beta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소비자들은 대중에게 검증된 인기 있는(1520회), 추천할 만한(1452회), 가성비 있는(977회) 상품을 주로 음성 검색했으며, 대표적 제품으로 디올의 레드 컬러 립스틱에 대한 검색량이 약 1500회로 가장 많았다.

국내 고객들은 주로 핑크, 오렌지, 코랄 등 자연스러운 톤의 립 컬러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인 고객들은 색감이 진하고 분명한 칠리, 워톤 등의 컬러를 검색하는 비

율이 높다.

지난달 8일 에이블씨엔씨 미샤가 새로 출시한 ‘데어 루즈’는 일주일 만에 3만 개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운 가운데, 이 중 진한 빨간색 ‘영 보스’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중국인 소비자들은 붉은색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포인트 메이크업 중에서도 특히 립제품의 경우엔 진한 레드 컬러의 제품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5월까지 중국 기업들의 ‘인센티브(포상) 관광’이 예정되는 등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뷰티업계도 레드컬러 립스틱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헤라와 마몽드, 라네즈, 에스쁘아, 이니스프리 등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주요 브랜드들은 올봄 빨간색 립스틱을 주요 전략 컬러로 내세우고 ‘레드 바이브’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면세점에서도 중국인 고객들이 핑크보다 레드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시한 헤라 쉐슈얼 인텐스 벨벳 337호 레드바이브 또한 중국인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넥타이 풀고 청바지” 구두업계는 옵니다

현대차까지 자율복장 바람
신세계百貨 구두 매출 -4.9%



자율복장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면서 구두 업계가 울상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달부터 서울양재동 본사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복장 완전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입는 비즈니스 캐주얼 수준이 아니라 티셔츠, 청바지 차림으로 근무해도 될 만큼 복장 규정을 완화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를 비롯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기업 문화에 따라 정장 차림을 벗어던지는 사람들이 늘고, 그들이 구두 대신 운동화, 컴포트화 등 편한 신발을 찾으면서 구두 업계 판매율은 곤두박질이다.

12일 신세계백화점의 구두 매장 매출 신장률은 2017년만 해도 전년 대비 27.4%였지만 지난해 -4.9%를 기록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2월까지의 신장률 역시 -2.6%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오픈마켓 지마켓의 남성 정장구두 판매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7년 1~2월 판매 신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2%였지만 지난해 -23%로 적자 전환했고, 올해는 1%의 판매 신장률로 가까스로 플러스 신장했다.

이에 구두 브랜드들은 캐주얼 제품의 구성을 늘리며 매출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탠디는 올해 1~3월 선보인 캐주얼 신제품 물량을 전년 대비 20% 늘렸다. 탠디 측은 수요가 높은 캐주얼화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탠디의 캐주얼화 부문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15% 늘었고, 올해 3월까지

의 매출 신장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나 뛰어올랐다.

반면 정장 구두 부문 성장은 부진하다. 지난 한 해 동안 탠디의 정장 구두 판매 신장률은 -10~15%로 적자를 나타냈고, 올해 1~2월까지의 판매 신장률은 -10%로, 전년도 같은 기간 판매율보다 떨어졌다.

자율복장제와 함께 연이은 불황이 캐주얼화 바람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있다. 일반적으로 구두 브랜드의 정장구두는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 초반의 가격을 형성하는 반면, 캐주얼화는 20만 원 초반대로 구두보다 저렴하다. 운동화의 경우는 10만 원 미만대로 구두 브랜드가 내놓는 캐주얼화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실제로 탠디는 수입 라인인 T에디션을 구두보다 저렴한 캐주얼화를 선보였다. 탠디 측은 “가격대가 높은 정장 구두보다 저렴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T에디션을 론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캐주얼화 바람도 있지만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신발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비싼 구두가 아닌 캐주얼한 신발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미선 기자 only@



100살 넘는 빈티지 시계

현대백화점은 24일까지 압구정본점 2층에 위치한 260여 년 전통 명품 시계 브랜드 ‘비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빈티지 시계 애호가들을 위한 ‘레 콜렉셔널(Le Collectionneurs)’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레 콜렉셔널’ 빈티지 시계는 비쉐론 콘스탄틴 전문가들의 복원 작업을 거친 제품으로, 구매 시 정품 인증서도 함께 제공한다. 대표상품은 1913년에 생산된 회중시계 ‘Ref. 12062(1600만 원대)’, 1929년에 생산된 회중시계 ‘Ref. 12061(3100만 원대)’, 1951년도에 생산된 ‘미닛리피터(4억 원대)’ 등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한울바이오·대웅제약, 안구건조증 신약 美 임상3상 개시

한울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 바이오신약 ‘HL036’의 임상 3상 시험 첫 투약을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HL036 임상3상 시험은 안구건조증 환자 630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HL036 0.25% 점안액을 1일 2회, 8주 동안 점안하고 나머지 그룹에는 위약을 점안해 위약 대비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전역의 11개 임상시험센터에서 12월까지 톨라인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50명을 대상으로 완료된 HL036 미국 임상 2상 시험 결과에서 HL036 점안액은 건조 환경에 노출되기 전후에 객관적

인 안구건조증 징후(ICSS)와 주관적 증상(ODS)에서 모두 위약 대비 빠르게 개선시켜 주는 것이 확인됐다. 이 결과는 지난해 10월 미국안과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ARVO 2019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HL036 점안액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해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자극감, 이물감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되는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 신약이다. 안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TNF α 를 억제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박승국 한울바이오파마 대표이사는 “HL036 미국 임상 3상 진입은 글로벌 바이오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한울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HL036의 탁월

한 임상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미중족 수요가 높은 안구건조증 영역에서 혁신적인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이사는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대웅제약과 한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바이오신약 프로젝트 1호로, 그동안 환자들이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선택지를 넓히고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구건조증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전 세계 4조 원으로 집계된다. 스마트폰과 사용,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연평균 7%씩 시장 규모가 성장해 2027년 7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혜은 기자 euna@

CJ제일제당, 외부 아이디어 수혈 받는다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개방형 R&D 3년간 200억 투입

CJ제일제당이 대규모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형 연구혁신)을 통해 외부 아이디어를 찾는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신기술과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는 한편,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식품바이오 프로젝트도 후원한다. 아울러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대상 투자도 추진한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내용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2021년까지 3년간 총 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1일까지 신기술 및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인 ‘CJ제일제당 Blossom Idea Lab’ 1기 모집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인체안팎에서 상호 작용하는 모든 미생물과 유전 정보를 통칭)과 레드바이옴(의료바이오), 화이트바이오(산업바이오), 푸드테크 등 식품 및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공모해 총 4팀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최종 채택된 팀에는 5000만 원의 상금과 3년간 최대 3억 원 규모의 연구지원금

이 지급된다. 아울러 CJ제일제당 연구진의 전문과 창업지원, 특허출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 플랫폼인 허브팟 웹사이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식품 및 바이오 분야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후원에도 나선다. 서울대 연구진이 보유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식품, 바이오 기술사업화 방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5명 교수진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모델로 육성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국내외 석학들이 연사로 참석한 ‘CJ R&D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외부 아이디어를 받아 들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경우, 향후 CJ제일제당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CJ제일제당 제품에 기술이 적용되는 등의 혜택도 있어 구체적인 사업화와 실질적 성과에 목말라 있는 국내 연구진에도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임박... 한계기업 '투자주의보'

작년부터 '비적정' 받은 기업 즉시 상장폐지 가능해져
관리종목 상장사 48곳... "투자시 정확한 정보 확인해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가 가능해지면서 '소나기는 피해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과 관리종목에 대한 투자주의를 당부한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된다. 외부감사인인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통보받은 당일 감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날 기준 현재 총 278개사가 감사보고서 제출을 끝낸 상태.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올수록 일부 종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8곳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기 때문이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나 관리종목을 중심으로 상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자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요 상장사
(단위 : 원)

종목명	현재가	지정일자
삼광글라스	40,700	2018/03/30
알보젠코리아	28,700	2018/04/03
디에스케이	12,800	2018/03/29
바이오제네텍스	9,590	2018/03/23
와이오엔	7,770	2018/08/16
에이리츠	5,940	2018/03/15
수성	5,820	2018/11/08
리켄	3,765	2018/03/19
삼화전자	3,660	2018/08/16
UCI	3,600	2018/05/11

※출처 : 한국거래소

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부정적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48곳에 달한다. 삼화전자,

알보젠코리아, 삼광글라스, 에이리츠 등을 제외한 44개사는 코스닥 기업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의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 내부결산실적 발표 전후로 공시, 언론, 풍문 등을 이용해 재무상태를 허위로 과장해 유포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급변 △공시, 언론 보도, 사이버 게시물 관련 특이사항(호재성 재료 발표) 발생 △지분구조(최대주주) 변동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 의심상태 발생 △투자주의종목 지

정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며 "한계기업과 관련해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국민연금 '손정의 벤처 펀드' 참여

소프트뱅크, 5600억 조성 초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 중 최대 규모

리스크 큰 투자방식 불구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

국민연금이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초기 스타트업 펀드에 참여한다. 이는 리스크가 큰 투자 방식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아시아 대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출범 예정인 펀드에 국민연금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새로운 글로벌 펀드에 대해 보도했다.

이 대표는 최대 5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글로벌 펀드에 소프트뱅크와 국민연금, 기타 운용사와 기업이 참여한다고 언급했다. 소프트뱅크의 초

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 중 최대 규모다.

소프트뱅크벤처스 관계자는 "국경에 상관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이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이번 펀드의 테마"라고 설명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이다. 현재는 서울과 중국 베이징,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팀을 두고 있다. 1조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 중이며 누적 펀드 수는 15개다. 이에 앞선 작년 11월 국민연금은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600억 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자금이 이번 펀드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연금 관계자는 "11월에 준 자금은 해외

벤처에 투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하는 자금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자금이 해외벤처에 투자될 수 있다는 얘기도.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대체투자를 해왔다. 또한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 확대 등의 투자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김훈길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주식이나 채권으로만 가는 것보다 대체투자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투자규모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혜 기자 winjh@ 이정필 기자 winjh@

신라젠, 주가 롤러코스터 왜?

'펙사백' 부정적 보도에 10% 떨어져... 회사측 "사실 무근"

신라젠이 12일 항암 바이러스 제제 '펙사백'의 임상 3상이 순항 중이라며 약효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이날 회사 주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다.

신라젠은 이날 회사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회사나 임상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각국 규제 당국의 엄격한 임상시험 3상 규정상 절대 임상시험 유효성 데이터에 관해 외부 누설할 수 없다"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낸 매체를 상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전



면 반박한 것이다. 이날 한 매체는 펙사백 임상 3상에 참여 중이라는 한 대학병원 교수의 말이라며 임상 3상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교수들이 펙사백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이에

상승세를 보이던 신라젠 주가는 보도 직후 한때 10%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낙폭이 좁아지면서 전일 대비 1.73% 하락한 7만38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신라젠은 간담 대상 펙사백 임상 3상 유효성 데이터 접근 권한은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DMC 판단에 따라 임상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 발생 시에는 임상 중단 등의 고지를 미국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Clinicaltrial.gov)를 통해 하게 돼 있다"며 "이는 문제점이 감춰질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라젠은 펙사백 임상 3상을 국내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등 23개 병원에서 대규모로 모집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경남제약 "유상증자 보류... 최대주주 유치 후 진행"

경남제약이 우량 최대주주 유치를 위해 유상증자 일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제약은 12일 공시를 통해 13일로 예정된 제3차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4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우량 최대주주 유치가 확정

되면 대상자와 협의해 추가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거래소는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우량 최

대주주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폐지 결정의 주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에 대해 "전략적 투자자라기보다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후 1월 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확정 전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반도체·정유·화학업종마저...

1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45% ↓
SK하이닉스는 작년 대비 반토막
LG화학 29% 롯데케미칼 39% 줄어
실적 둔화 우려 컨센서스 반영 의미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와 정유·화학주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126곳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현재 26조1550억 원이다. 작년 동기보다 27.0% 감소했으며 석 달 전 전망치(36조1438억 원)보다 27.6% 하향 조정된 수치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반도체와 화학업종의 부진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은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반도체 업황 악화와 스마트폰 판매량 정체로 지난해 4분기에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8조47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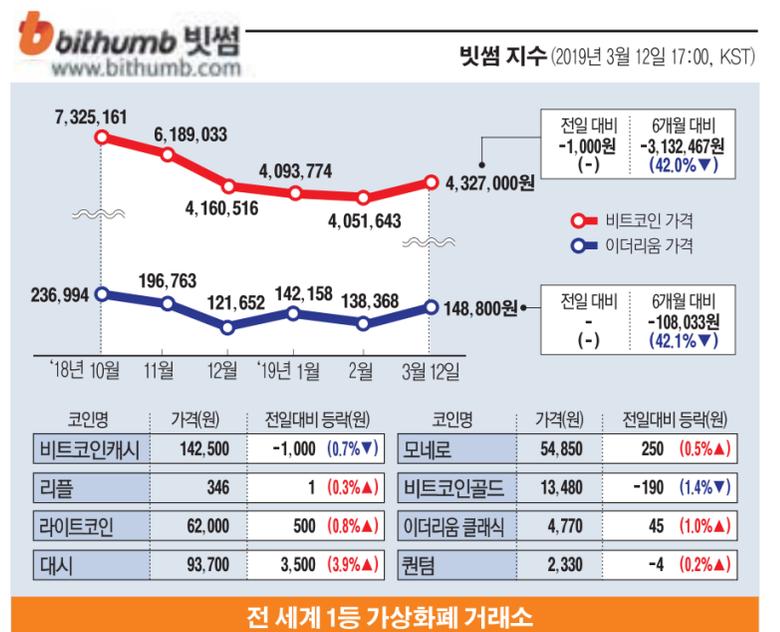
의 전망치는 4조47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2조1324억 원에 불과하다.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정유·화학주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 둔화 우려로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전망치 역시 낮아지고 있다. LG화학은 전분기 대비 29.1% 감소한 4617억 원, SK이노베이션은 28.8% 줄어든 5068억 원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과 한화케미칼도 각각 39.9%, 44.5% 실적 전망치가 줄었다.

이도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화학 시황은 연말을 바닥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아직 강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특히 예상보다 더딘 수요회복으로 3월 주력제품 시황 둔화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1분기 실적 악화가 유력한 상황인 만큼 투자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현 증시 상황을 고려해, 실적 개선세를 보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최근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 둔화 우려를 컨센서스에 빠르게 반영했다는 의미"라며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향후 이익 회복이 진행되는 기업이 주목받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알루미늄 정밀주조 기술력 친환경차 호재 타고 '쌩쌩'

기업탐방

삼보산업



삼보산업 서산공장 전경.

최근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매연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불이 붙었다. 삼보산업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이다.

1974년 설립된 삼보산업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 전문기업이다. 사용된 알루미늄을 수거한 후 용해과정을 거쳐 알루미늄 합금 형태의 제품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정밀주조 공법)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삼보 오토와 케이블방송시뮬스커뮤니케이션즈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최장규 삼보산업 대표는 "알루미늄 합금은 지구온난화 해소에 필요한 자동차 고성능화, 경량화를 위한 대체 소재"라며 "전자산업과 정밀기계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근 하이브리드카와 디젤 승용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인기를 끌면서 알루미늄 및 자동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국내 자동차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면서 성장세는 가팔라질 전망이다. 삼보산업 매출액의 약 98%는 완성차 회사 납품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삼보산업은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 29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월 진해공장 2공장 매각으로 22억 원 규모의 차입금도 갚은 상태다. 오는 12월에는 밀양 조

자동차 부품 분야 성장세 작년 영업이익 29억 '흑자전환' 현대제철·포스코와 공급계약

성부지 3·4공장 매각으로 101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부채 축소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삼보산업의 주요 거래처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동국제강이다. 특히 올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각각 연간 220억 원, 280억 원에 달하는 알루미늄 탈산제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성장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종속회사인 삼보오토는 GM(북미, 중국 상하이), 현대기아차 그룹에 부품을 공급하며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LG 전자, 대림자동차, 잉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최장규 대표는 "올해 흑자전환하면서 이익잉여금이 52억 원이 증가하는 한편 전환사채의 자본전환으로 59억 원의 자본이 확충될 계획"이라며 "또 탈산제 판매량 증대 및 설비효율 극대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유에스티 "상반기 차세대 강관 '클래드' 개발"

"세계시장 매년 10% 성장 기대"

스테인리스강관 제조 전문기업 유에스티가 차세대 강관인 클래드 강관(Clad pipe)·고난이도 접합 기술이 적용된 신소재 특수 강관)을 개발한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클래드 강관은 해양플랜트, 원유수송용 파이프로 쓰인다. 기술 난이도로 인해 일부 철강 회사들만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다. 유에스티 관계자는 12일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로 목표로 클래드 강관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일반 해양플랜트와 원유수송용 파이프는 원유에 포함된 황·이산화탄소와 해수에 포함된 산성분에 의해 부식된다. 파이프 교체 비용은 매년 전체 파이프 건설비의 30%에 달해 클래드 강관이 차세대 강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클래드 강관은 석유화학, 가스 플랜트, 해양구조물 및 석유·가스 시추선, 화력·원자력발전소, 조선, 수송용 파이프라인 등에 사용된다.

유에스티는 강관 외면이나 내면에 다른 재질의 합금을 용접함으로써 표면 특성 변화를 통해 내열성, 내식성, 내마모성, 내산화성 등의 개선된 강관을 개발 중이다. 클

유에스티 증가 추이



래드 강관은 웰딩(Welding) 방식과 레이저(Laser) 방식으로 나뉘며, 유에스티의 경우 레이저 오버레이 타입의 용접 방식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유에스티는 클래드 강관 시장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9만 톤이며, 매년 1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한편 클래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금속을 결합해 각 금속의 장점만을 합친 고급 신소재다. 열전도율, 열보존율, 열효율이 뛰어난 알루미늄과 내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식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스틸을 결합한 소재가 가장 널리 쓰인다.

고종민 기자 kjm@

이 기사는 Money10 3월 12일 오전 10시 7분에 게재됐습니다.

흥아해운 품 떠난 국보, 대대적 변화 예고

발행 예정 2억株로 확대

10대 1 '액면분할' 병행

100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설립 이래 첫 사채 발행도

유가증권 상장사 국보가 설립 60여 년 만에 대대적 변화를 맞고 있다. 해운업의 전반적 침체 속에 최대주인 흥아해운이 사모펀드에 지분 전량을 팔기로 한 것.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과 액면분할, 사업목적 추가 등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보는 전날 최대주인 흥아해운이 제이에스2호 사모펀드 외 1인과 보유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도 주식은 흥아해운 보유 지분 21.08%(35만4571주)와 국보임원 2인이 가진 7만1352주 등 총 42만5923주(25.32%)다.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금액은 149억 9400만 원으로 주당 3만5200원이다. 11

국보 증가 추이



일 국보 증가 1만7852원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계약금 10%는 이날 지급됐으며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4월 25일 잔금을 치른다. 임시 주총에서는 변경되는 최대주주 측의 인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조달 한도를 넓히고 액면분할에 따른 유통주식 수 확대도 꾀한다. 세부적인 정관 변경 안을 보면 우선 국보의 발행 예정 주식 수를 기존 500만 주에서 2억 주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액면가 5000원 주식 1주를 500원 10주로 나누는 액면분할도 병행한다. 주총에서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

하면 국보의 유통 주식 수는 기존 168만 2304주에서 168만2304주로 늘어나게 된다.

국보는 주식과 사채의 발행에서도 한도를 상당폭 늘린다. 신주 발행 주식 총수의 범위를 50%에서 400% 범위로 변경한다. 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1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가 하락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을 최저 액면가까지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다.

국보는 신규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우선 제이에스2호 사모펀드, 다나스1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규모로 3차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신주 발행가액은 1만2776원이며 납입일은 각각 4월 26일, 5월 31일이다.

설립 이래 처음으로 사채 발행도 한다. 제이에스2호 사모펀드와 뉴크라운 투자조합이 각각 100억 원, 50억 원 규모로 CB와 BW 인수자로 나섰다. 두 사채 모두 표면과 만기 이자율은 1%, 2%씩이며 전환행사가액은 1만4845원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지금 만나러 갑니다
70th 창립 70주년
교보증권

로보서비스 무료 이벤트

로보서비스(투자자의달인, 마보, 스톡투) 이용 무료
* 로보서비스 신규 고객만 가능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교보증권 기존 및 신규고객

신용공여이자율 혜택 이벤트

신용공여이자율 연 4.9%, 담보대출이자율 연 5.5%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당시 최초 신규 및 휴면 고객의 비어있는 계좌 개설 건
* 신용공여 및 담보대출은 신용등급과 채무잔액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고객에 한하여 추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 이벤트

해외주식 담보대출 연 4.1%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기간에 발생한 담보 대출건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 이벤트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15%, 홍콩 0.2%, 중국 0.2%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 이벤트 기간에 비어있는 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신규증권계좌에 한함)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투자자 유의사항

국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비해 예금보험공사와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적용 담보비를 미달 시 기존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 휴면권이 임박할 수 있습니다.
예외 주식예탁은 투자 한도, 거래시간, 대외행방 등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주식예탁은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시 고객명 MTS 5대액 시 0.14%의 주사대 수수료로 이미 적용된 2.1%를 합쳐 기존 1% 적용, 증권거래비 및 신규계좌개설 해외 주식 기본 매매수수료는 전 시장 0.3% (비회원)이며 최소수수료는 미국 30USD, 홍콩 300HKD, 중국 100CNY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조건 및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사대 비어있는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및 1544-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보서비스 고객에게 맞는 투자 상품은 수익담당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공급과잉, 수익률 5% 붕괴

지난해 말 기준 4.98%

2002년 집계 시작 이후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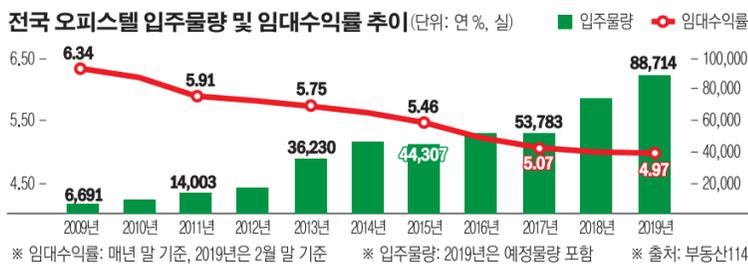
입주 8만실 넘어 공실 우려도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이 5% 밑으로 떨어졌다.

부동산114는 작년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이 4.98%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연 5%의 임대수익률이 무너진 것은 2002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올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97%로 나타났다.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6년에 5%가 붕괴됐다. 2015년에 5.12%던 수익률이 2016년 4.91%, 2017년 4.74%, 2018년 4.63%로 점차 낮아졌다. 올해(2월 말 기준)는 4.63%로 집계됐다.

서울 이외 지역은 △경기(4.99%) △인천(5.89%) △부산(5.14%) △대구(4.64%) △



광주(6.40%) △대전(7.26%) △울산(4.53%)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수익률 하락 원인으로 입주 물량 증가를 지목했다.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8만8714실로 2004년(9만567실) 이후 가장 많다. 특히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09년 입주 물량(6691실)과 비교하면 13.2배 많은 수준이다.

올해 지역별로 예정된 물량을 보면 △서울(1만1493실) △경기(4만559실) △인천(1만486실) 등에서 총 6만2538실이 입주할 예정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초과 공급 우려감은 2020년에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임대수익률의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연 4~5%) 수준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임대수익을 노리는 오피스텔의 상품 가치 하락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공급량의 증가로 공실 비중이 덩달아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일부 오피스텔 단지는 연 4% 수준의 임대수익률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수주·인허가 면적 감소... 건설업 '보릿고개'

1월 9.5조... 지난해보다 24% ↓

공공주택 공급 늘며 낙폭 줄여

주거용 허가면적도 18.5% 감소

건설업이 경기 불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신규 수주와 건축 인허가 면적 등 앞으로의 건설 먹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의 실적과 향후 실적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국내 건설수주는 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4.6% 감소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공공수주가 72.1% 증가한 3조3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낙폭이 줄었다. 민간

수주는 같은 기간 42.3% 감소한 6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주택 수주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7.6% 급등한 6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주택 수주는 양호한 재개발 수주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수주가 부진해 최근 3년래 가장 부진한 2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6% 줄어든 규모다.

향후 수주 실적을 가능할 수 있는 건축 허가면적도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028만5000㎡ 기록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면적이 18.5% 감소해 평균 세 배 수준의 낙폭을 보였다.

건설업은 통상 건축 허가 물량 증가에서

수주 증가로 이어져 실질적인 건설기성으로 실현된다. 마찬가지로 반대 흐름도 통용되는 것이다.

현재 건설기성은 이미 위축된 상태. 올해 1월 건설기성은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감소했다. 공공 기성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1년 4개월간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민간 기성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 위축의 주요인으로는 정부 규제와 맞물린 주택경기 둔화가 꼽힌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약 148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원인은 가계대출 증가율 감소에 따른 주택경기 둔화, 주거용 건축 수주 감소”라고 분석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중견 건설사 경영 정상화 기지개

쌍용건설, 법정관리 졸업 후 새 브랜드 '더 플래티넘' 론칭 동부건설도 회생 벗어나 흑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건설사들이 속속 재기에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체질 개선을 마친 건설사들은 수요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평면과 품질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사업 재개에 적극 나서며 주택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쌍용건설이다. 1998년 처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2013년 12월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쌍용건설은 2015년 1월 두 번째 법정관리에서 졸업하며 본격적인 주택 사업에 돌입한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 쌍용건설은 우수한 분양 성적표를 받았다. 2017년 6월 분양한 '밀양 쌍용에가 더 퍼스트(7.21대 1)'와 2018년 5월 분양한 '용마산역 쌍용에가 더 클라우드(22.48대 1)'는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존 아파트 브랜드 '에가'와 주상복합 브랜드 '플래티넘'을 일원화한 새 브랜드 '더 플래티넘'까지 론칭했다. 브랜드 론칭 이후 처음으로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역시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

기업회생절차를 겪었던 동부건설도 법정관리 졸업 후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익 규모를 늘리고 있다. 동부건설은 2014년 건설업 침체, 미분양 등의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2년 후인 2016년에 사모펀드인 키스톤PE와 M&A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법정관리 졸업 이후 신용등급 상승과 활발한 수주 활동에 나선 동부건설 역시 공격적인 주택 공급으로 경영 정상화에 돌입했다.

지난해 분양한 '범어 센트레빌', '과천 센트레빌', '주안역 센트레빌' 등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분양 수익을 거뒀다. 올해 동부건설은 주택 브랜드인 '센트레빌'은 유지되되 차별화된 아파트 내·외부 디자인을 적용하고 업그레이드된 상품성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분양경기실사지수 최저치... '호황기' 끝나나

분양 호황기가 끝났다. 전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던 분양가격도 꺾일 조짐이다. 미분양 우려는 커지고 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63.0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이 2017년 10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 최저치는 작년 11월의 63.4였다.

서울의 HSSI 전망치는 79.6으로 전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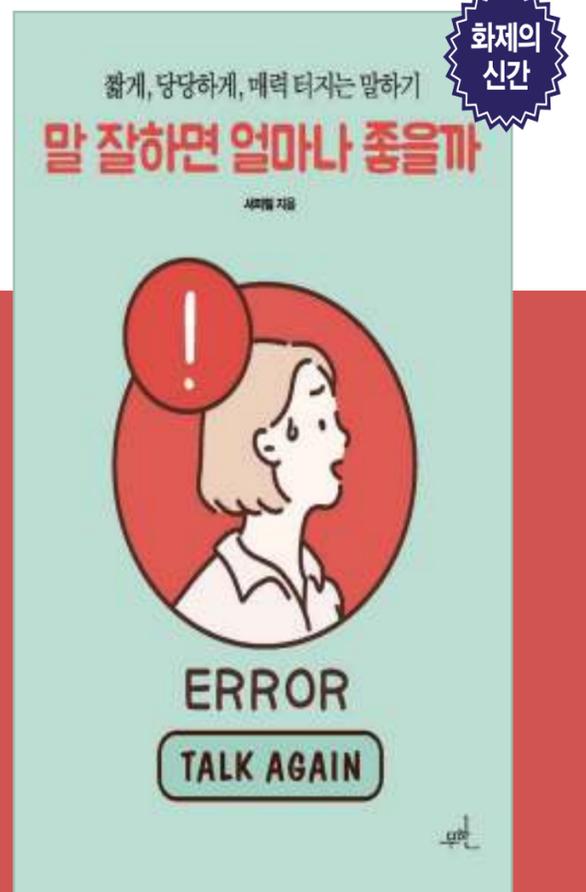
(78.1) 대비 소폭 올랐다. 서울 전망치는 지난달부터 70선으로 내려앉았는데 이 역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지수가 낮아진 만큼 시장이 둔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지난해 과열로 시달리던 분양시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서지희 기자 jhsseo@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훑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서울서 '성남갑 아파트' 못 짓는다

재건축·재개발 기획단계부터 디자인 혁신 자문·협력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경관 등 고려 가이드라인 제시 창의적 건축 위해 공모 시행도

서울시가 '아파트 공화국'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에 개입한다. 아파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을 신설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사업과 건축디자인 혁신안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의 내용

이 담겼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민간 건축물 중 주택 유형이 58%로 가장 비중이 커 서울 도시경관을 좌우한다"며 "아파트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극복해 미래 100년을 바라본 도시계획 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뉴 프로세스'를 도입해 정비계획 수립 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관리·조정·지원한다. 특히 정비사업이 신속히 결정·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협력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차례 반려되는 일을 방지해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심의 3회→1회, 기간 20개

월→10개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사전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전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별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다. 용적률, 높이 등 일반적인 계획 요소뿐 아니라 경관·지형, 1인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서울시는 '성남갑'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시행한다. 시는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병행하고 연면적 20% 이상 특대 디자인 설계도 뒷받침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달리는 열차 안 예술작품

'웃는 고양이'로 알려진 거리예술가 토마뽀유가 12일 오후 서울 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부에 그림을 그려 넣는 행위예술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클럽 아레나' 탈세 목인 혐의 경찰,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클럽 아레나를 세무조사한 국세청이 최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임의동의 제출 형식)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국세청 조사2국 직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아레나의 거액 탈세를 축소·은폐하고,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 모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당시 아레나를 조사한 팀이 부실 과세를 막고, 세법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세무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2017년 말 처음 국세청에 제보한 A씨는 4년 분량(2014~2017년)의 회계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탈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A씨가 제보한 아레나 관련 업체는

약 20여 개(폐업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세청은 A씨가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작업에 돌입, 탈세 정황이 명확한 업체 2~3개를 선별한 후 그 이듬해인 2018년 3월 초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약 5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국세청은 (제보자의 주장대로) 강 모 회장이 아레나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했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조사를 받은 수개 업체에 대해서는 약 260억 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이른바 바지사장 등 6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국세청은 A씨가 제보한 14~15개 업체는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점과 탈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이를 참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전투 중 숨진 군경 유족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법 “부상자 가족은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투 중 숨진 군경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정장을 상대로 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의 부친은 1950년 9월 전투 중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 씨는 2000년 12월 국가유공자법

이 개정되면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가 신설되자 2001~2012년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조 씨의 부친 사망 시점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수당 지급요건에 맞지 않다고 그동안 지급한 수당을 환수 처분했다.

조 씨는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16년 8월 다시 수당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가 이를 거부하자 이번엔 지급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동일하게 6·25전쟁에 참전했어도 전투기간 중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은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한 것이어서 희생 정도가 더 크다”고 짚었다. 장효진 기자 js62@

소방서 앞 불법주차땀 신고 즉시 자동 과태료

절대 주차금지 구역 지정

앞으로는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는 '절대 주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진다.

이 구역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내달라고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경과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절대 주차 금지구역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잼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잼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잼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기업희생 보고서

② 신촌·창동역사

서울특별시 지하철에는 '유령역'과 '괴물역'이 있다.

한 곳에는 텅 빈 건물이 쓸쓸히 남아있고, 다른 한 곳에는 짓다 만 건축물이 9년째 방치돼 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1호선 창동역이다.

1986년 낡은 역을 현대화해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민자역사 사업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15곳이 선정됐다. 창동역과 신촌역도 2000년대 중반 '부활'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역은 모두 희생의 기로에 서 있다. 재기의 꿈을 꾸다 몰락한 두 역을 조명해본다.

흉물 된 민자역사, 生死 갈림길서 '부활의 기적 소리'



신촌

우선 협상자에 'SM그룹'... 상반기 면세점 그랜드 오픈

유동인구 부족·상권 몰락 등 개장 후 입점률 30% 그쳐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 높아 작년 9월 회생절차 돌입
SM그룹과 본입찰 전망

"아직도 안 망했네."

신촌 소재 대학생들에게 경의·중앙선 신촌역은 '가깝고도 먼 당신'이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캠퍼스 코앞에 있지만 찾아갈 일은 손에 꼽힌다. 재작년 연세대를 졸업한 A(27)씨는 "다 해봐야 10분 정도 신촌역사에 가봤다"고 회상했다. 같은 해 이화여대를 졸업한 B(27)씨도 1년에 두 번 정도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본 게 전부다.

2012년 이후 6층 규모의 신촌역사에는 메가박스만이 유일하게 영업을 해왔다. 최근 면세점이 들어서긴 했지만, 찾는 사람은 여전히 적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이자 '유령건물' 신촌역사의 흑역사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부터 용산과 신의주를 오가는 경

의선에 속해 있던 신촌역사가 민자사업으로 재탄생한 것은 2006년이다. 동대문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F&D와 메가박스가 참여했다. 1~4층에는 밀리오레가 입점하고, 5~6층에는 메가박스가 들어섰다. 하지만 개장 후 입점률이 30%에 그쳤다. 2009년에는 이마저도 20%로 줄고, 2012년에는 메가박스만이 남았다.

가장 큰 문제는 유동인구의 부족이었다. 일단 경의·중앙선 신촌역의 열차 배차가 거의 없어 '기차역'으로서 유입 인구가 많지 않다. 시간당 한 대 팔로 정차하는 상황이다. 흥대나 이태원 등 주변 상권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인터넷 쇼핑몰, SPA 브랜드 등 의류업계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한 것도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동대문 도매 야간시장의 메카인

밀리오레의 영업 방식을 성창F&D가 시장조사사 트렌드조사가 없이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 패착이라는 분석이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앞서 성창F&D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의선이 복선화되면 하루 5~10분 간격으로 모두 288회의 열차가 운행된다"고 과장광고한 것이다. 기차들이 신촌역을 288회 '지나가는 것'은 맞았지만, 실제로 역에 멈추는 기차는 거의 없었다. 투자자들은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불뚝은 신촌역사로 튀었다. 성창F&D는 신촌역사를 상대로 선납한 10년치 임대료 반환 소송을 걸었다. 법적으로 30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촌역사는 위헌소송으로 맞

붙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신촌역사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났다. 양측의 계약은 2014년 끝났다.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회계법인의 조사에서 임대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법정관리인은 인가전 M&A에 착수했다. 매각주관사에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예비인수서를 받았다.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조만간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나마 최근 탐시터면세점이 케이박스로부터 189억 원을 투자받아 신촌역사 2~4층에 면세점을 차린 것이 긍정적이다. 아직 2~3층은 내부공사 중이며, 4층만 부분 오픈한 상태. 면세점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는 그랜드오픈 예정"이라며 "본격 영업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동

'새 주인' HDC현대산업개발, 수분양자 갈등 봉합 관건

경영진 분양대금 유용 적발 대주주 3번 교체 '악영향'
15년째 빈 껍데기 신세
HDC현대산업, 조건부 인수
7월까지 회생절차 끝내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C(35)씨는 '창동역'을 지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골조가 흰하얀 민자역사 때문이다. 그는 "지나갈 때마다 민자역사를 보면 쓸쓸스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주거 환경 개선한다고 주변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하는데 저 흉물이나 얼른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한다.

창동역 민자역사 사업은 2004년 시작됐다.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12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2009년 분양률이 79%에 이르며 꽤나 순탄히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창동역사는 희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문제는 '사람과 돈'이었다. 경영진 비리가 터진 것이다. 공사비로 사용해야 할 분양대금을 경영진이 멋대로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이들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

속되며 일단락났다. 하지만 창동역사의 공사대금이 사라졌다.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른다.

공정률 27.57%, 5층. 그 이후로 9년 동안 민자역사는 '재생'이라는 껍데기만 남긴 채 방치돼 왔다.대주주의 무책임한 행태도 창동역사의 발목을 잡았다. 화근은 창동역사의 지분 67.29%를 보유한 서초엔터프라이즈였다. 정확히 말하면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이나 바뀐 서초엔터프라이즈의 주인들 때문이다.

원래 서초엔터프라이즈의 대주주는 BHK였다. BHK는 지분 전량을 디엔케이하우징에 매각한다. 그리고 디엔케이하우징은 이를 또 블루센트럴스테이션에 팔아 넘긴다. 문제는 두 번째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다. 블루센트럴스테이션이 매각을 위해 한화자산운용으로부터 차입한 3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한 보증을 창동역사가 선 것이다. 인수 대상 기업의 보증을 받아 그 기업을 사들이는, 기묘한 구조로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2011년 2월, 만기일이 지났지만 블루센트럴스테이션은 차입금을 갚지 못했다. 한화자산운용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보증을 선 창동역사에 기한이익상실과 연대보증 이행정구를 통지한다. 공사대금도 없어 공정이 중단된 창동역사다. 결국 부도 처리되기에 이른다.

'실상가상' 창동역사를 보다 못한 수분양자 5명이 2017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창동역사의 상태는 처참했다. '0원.'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삼일회계법인이 매긴 창동역사의 청산가치다. IB업계 관계자는 "창동역사는 코레일에서 임

대해주는 형식이라 자산이 없다"고 설명했다. 파산하면 채무자들은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신촌역사와 마찬가지로 인가 전 M&A를 통한 변제 계획을 세웠다.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과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 본계약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조건 이상의 원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상 HDC현대산업개발이 새로운 주인이 된 셈이다.

하지만 남아야 할 산은 아직 많다. 우선 수분양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매각 대금으로는 원하는 만큼 변제를 받지 못한다며 반발한다. 이들의 반대에 따라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원점이다. 시간도 많지 않다. IB업계 관계자는 "7월이 지나면 창동역사 회생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전에 계획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이더리움클래식’ 이더리움과 협력하는 이유는

자금부족 운영난항 타개 위한 선택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3년 전까지만 해도 두 개의 코인으로 분리된 이더리움(ETH)과 이더리움클래식(ETC)이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만간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이더리움클래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더리움은 다른 코인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이더리움클래식, 이더리움 토큰으로 = 이더리움클래식은 2016년 10월 이더리움 탈중앙화 펀드인 ‘다오(DAO)’가 해킹당하면서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코인입니다. 당시 주류가 지금의 이더리움을 선택했고, ‘해킹조차도 플랫폼의 일부’라고 주장한 이들이 ‘이더리움클래식’을 선택했었죠.

이더리움클래식의 존재는 대규모 해킹과 코인 분열을 의미하고 있어 이더리움 재단에선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는데요.

드디어 두 플랫폼이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협력은 이더리움클래식을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표준토큰(ERC-20 방식)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토큰이란 이더리움 플랫폼이 지원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체 네트워크 없이도 이더리움을 통해 관리되는 게 특징이에요.

이름은 ‘토큰화된 이더리움클래식(TETC)’이라고 하고, 프로젝트 이름도 평화의 다리라는 의미의 ‘피스브릿지(Peace Bridge)’예요.

일각에선 이번 협력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더 거대해지는 계기로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더리움클래식이라는 토큰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뜻을 밝힌 이도 있어요. 이더리움클래식 개발팀 중 하나인 ‘ETCDev’의 전임 매니저 도널드 매킨타이어(Donald McIntyre)는 “ETC와 ETH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ETC 네트워크만 손해를 본다”며 “협력에 따른 모든 혜택은 ETH 네

코인	프로젝트명	비고
도지코인(DOGE)	도지더리움(Dogetherum)	도지코인과 협력
비트코인(BTC)	랩비트코인(WBTC)	카이버네트워크사 등 추진
이더리움클래식(ETC)	피스브릿지(Peace Bridge)	이더리움 재단과 이더리움클래식 협동조합 협력
이오스(EOS)	워털루(Waterloo)	카이버네트워크사 추진, 스마트컨트랙트 호환
지캐시(ZCASH)	-	이더리움과 병합 가능성 언급됨, 현실화 낮음

토큰화로 자체 네트워크 없이 거래 이더리움 네트워크 더 거대해져

ETC 존재만으로 해킹·코인 분열 의미 재단 ‘아픈 손가락... 금전 지원 결정’

ETH, 랩비트코인·도지더리움도 연계 “가상화폐 금융 거래소로 부상할 것”

트위크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이더리움클래식 운영 난항이 원인 = 이더리움클래식은 최근 운영과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적인 개발팀 ‘ETHDev’는 지난해부터 개발자금이 부족해 유지가 힘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과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네트워크의 심각한 결함까지 발생하기도 했어요. 올 초 플랫폼에선 있어서는 안 될 ‘51% 공격’까지 이뤄지고 말죠.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리움클래식에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리움클래식 협동조합(Ethereum Classic Cooperative, ECC)’에 1.5만 ETC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분리된 이후 두 코인은 ‘이더리움’이란 이름만 같을 뿐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때부터 커뮤니티에서는 두 프로젝트가 분리한 지 2년 만에 합쳐하는 것이 아니냐고 예상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이오스와 연결 = 최근 이더리움

은 여러 방면에서 다른 프로젝트와의 접점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 재단과 긴밀하게 협력 중인 카이버네트워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2월 카이버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1대 1 전송하는 ‘랩비트코인(WBTC)’ 서비스를 출범했어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길러’라고 자칭했던 이오스(EOS)와의 연결 계획도 발표했죠. 프로젝트 이름도 중전을 의미하는 ‘워털루(Waterloo)’에서 따왔습니다. 워털루 프로젝트는 이더리움과 이오스 두 플랫폼의 코인뿐 아니라 스마트컨트랙트(자동이행계약)까지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더리움은 많은 프로젝트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다른 많은 코인을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테린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다른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WBTC(Wrapped Bitcoin) 등의 서비스 모델은 향후 이더리움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라며 “더 많은 기관과 연맹이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랩비트코인, 도지더리움(Dogetherum), 이더리움클래식토큰(TETC) 등을 성공시켰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제프 가르지크(Jeff Garzik)은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이더리움이 가상화폐 업계 일종의 ‘금융 거래소’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hura@

시장 이모저모

독일 국회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잭 도시 트위터 대표가 매주 1만 달러씩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선을 끌고 있다.



獨 “블록체인 전략에 가상화폐 규제 포함”

해외 가상화폐(암호화폐) 전문매체에 따르면 독일 국회 연사들은 “국가 블록체인 전략은 가상화폐 거래와 토큰 발행을 위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안은 11일 독일 재무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연합당 재무부 대변인 등에 의해 제기됐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타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와 토큰 거래를 위한 명확한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대표 “매주 1만 달러 비트코인 매입”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잭 도시(Jack Dorsey) 대표가 매주 1만 달러(약 1129만 원)만큼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 대표는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 트위터와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글로벌 결제서비스사 스퀘어(Square)의 결제 플랫폼 캐시앱으로 비트코인을 매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고 싶지만 캐시앱의 구매 한도가 있어 그 이상을 구매할 수 없다”고 했다. 캐시앱의 주당 구매 한도는 1만 달러이다. 도시 대표는 비트코인을 ‘인터넷 화폐’로 평가해왔다. 앞서 그는 “비트코인은 인터넷에서 생기고 발전하고 테스트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SIX, 이더리움 기반 ‘상장지수상품’ 출시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 SIX가 이더리움(ETH) 기반 상장지수상품(ETP)을 출시했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블록체인 스타트업 ‘아문 AG(Amun AG)’와의 협력을 통해 ETP 출시를 예고했던 SIX 거래소가 이더리움 기반 상장지수상품 출시를 발표했다. 해당 ETP는 Amun AG가 지원하며 거래소 자체 지수인 AETH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이다. 관리 수수료는 2.5%가 부과될 예정이다.

SIX 거래소는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등 총 5개 가상화폐를 기초로 한 ETP 출시를 예고했으며, 이더리움 ETP가 제일 먼저 출시된 것이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말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스타트업 엑시트 기회 제공이 KSM의 역할”

〈스타트업 마켓〉

이부연 한국거래소 혁신성장지원부장

클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한 평균 업력 4년차 소형 기업 대상 IPO·M&A로 자금 회수...코넥스·코스닥 상장 사다리 구축

20년 전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두 청년이 있었다. 비좁은 차고(車庫)에서 10만 달러의 투자금을 가지고 출발한 스타트업은 현재 시총 9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 '구글'로 성장했다. KSM(스타트업마켓)은 한국의 구글을 꿈꾸는 창업자들을 위해 준비된 차고다.

한국거래소에서 만난 이부연(사진) 혁신성장지원부장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장외거래 플랫폼(KSM)을 운영하고 있다”며 “창업 초기 기업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KSM에는 현재 101개사가 등록돼 있

다. 2016년 40개사로 시작했지만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다. 이곳에서 기반을 닦은 기업 중 5개 이상의 기업이 올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클라우드펀딩에서 KSM으로, 이어 코넥스와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다.

이부연 부장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유사 시장으로 K-OTC가 있지만 공모실적이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여력이 있는 중대형 기업이 거래 대상”이라며 “KSM은 클라우드펀딩으로 시작한, 평균 업력이 4년 차인 소형 기업이기에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스타트업은 투자 촉진을 위해 IPO(기업공개)나 M&A(인수합병) 등 다양



한 투자자금 회수 경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벤처펀드 등 대부분의 투자가 IPO 직전인, 규모가 큰 기업들에 집중돼 있어 성장자금이 필요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M&A 중개망도 함께 개설됐다.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발굴해 탄탄한 상장기업 혹은 VC(벤처캐피털)와의 매칭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설립 이후 509개사가 등록했고 총 16건의 M&A를 성사시켰다.

이 부장은 “투자-투자금회수-재투자’ 등 벤처자금 선순환이 이뤄져야 스타트업이 규모를 키우는 등 성장할 수 있다”며 “엑시트(투자금회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 기업이 큰 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장유치부터 상장지원, M&A 등의 모든 과정을 유기적이고 일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코스닥시장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는 등 상장 유치에도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백화점협회 신임 회장에 강희태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가 한국백화점협회 새 회장에 선임됐다.

강 대표는 서울 중앙고등학교와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잠실점장, 본점장, 영남지역장, 상품본부장, 차이나사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친 후, 2017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백화점협회는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태평, 현대, AK플러자 등 6개 회원사가 모인 단체다. 백미선 기자 only@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연임

KTB자산운용은 1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태우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이달 27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어 열리는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까지 3년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이석로 원장

대한의사협회는 보령의료봉사상 35번째 대상 수상자로 방글라데시에서 24년째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석로 원장(교래폴라병원)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석로 원장은 1994년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인술을 펼치며 교래폴라병원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간호학교 설립 등 보건 의료 인재 양성에 매진해 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웹 창시자 버너스리 “웹과의 전쟁 필요한 시점”

30주년 맞아 공개서한... ‘악의적 괴롭힘·왜곡된 인센티브·극단성’ 3가지 역기능 지적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이 발명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30년 전 영국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리(사진)는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웹의 형태로 구체화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세상으로 나온 웹은 사회를 엄청난 속도로 변화시켰다.

팀 버너스리는 11일(현지시간) 웹 창시 30주년을 맞아 공개한 서한에서 “인터넷이 더 이상 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웹과의 전쟁이 우리 시대에 중요

한 과제가 됐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버너스리는 오늘날 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로 그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해킹이나 온라인 괴롭힘을 언급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시장이 경쟁적이고 혁신적이며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법과 규칙을 내놓아야 한

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비뚤어진 인센티브’ 제도를 또 다른 문제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IT 공룡들의 광고 기반 수입 모델을 지적했다. 이러한 전략 탓에 클릭을 유도하는 미끼성 기사가 늘고 잘못된 정보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버너스리는 그동안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어난 거대 기술 기업들을 비판해 왔다.



버너스리는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없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극단화된 논쟁을 지적했다.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은 발언의 자유를 추구해온 기술 기업들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플랫폼에서 모욕적인 콘텐츠들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각국의 규제당국도 이들 기업들이 개인의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도록 압박에 나섰다. 김영정 기자 0jung2@

車 유관 6개 기관 참여 ‘자동차산업연합회’ 발족

“산업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 대응”

초대 회장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자동차산업 6개 유관기관은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 발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그리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연합회

발족 배경에 대해 “내연기관 시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자동차와 IT융합도 가속화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별 기업단위가 아니라 부품업체와 연구계를 포함한 산업생태계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에서 업계 차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조직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향후 미세먼지와 CO2, 안전 사고 발생 등 환경 및 안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공급 확대가 확실한 대



이종화 한국자동차공학회장, 허남용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득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왼쪽부터)이 자동차산업연합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1:1 맞춤형 생산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생산 방식의 변화에 적합한 노동유연성 확보와

인력개발 방안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초대 연합회 회장으로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선임됐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CJ대한통운 골프선수 3명 PGA대회서 나란히 톱10

CJ대한통운 소속 골프선수 중 3명이 한국 남자골프 역사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단일대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CJ대한통운은 12일 임성재, 강성훈, 안병훈(왼쪽 사진부터) 선수가 6~1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베이힐 클럽 앤 루지에서 열린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톱10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PGA 투어 무대에 처음으로 입성한 임성재 선수는 토미 플릿우드, 라파 카브레라 베요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강성훈 선수는 8언더파 280타로 공동 6위를, 안병훈 선수는 7언더파



281타로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CJ대한통운은 2016년부터 한국남자골프 선수들에 대한 후원을 하고 있다. 역대 최연소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컵을 거머쥔 김시우 선수를 포함해 안병훈, 김민휘, 강성훈, 이경훈, 임성재 선수 등 6명이 PGA 투어에서 활동 중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건설, 청년봉사단 해피무브 미안마 양곤 타케타서 CSR 활동

현대건설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현대건설 직원, 현대차그룹 직원, 해피무브 22기 대학생 해외봉사단, 국제협력기관 코피온과 함께 미안마 양곤 타케타 지역에서 11박 12일간 글로벌 CSR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피무브 봉사단’은 2009년에 만들어진 현대차그룹의 대표 글로벌 사회 공헌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이번 봉사단 파견 주관 계열사로 미안마에서 해피무브 대학생 60여 명과 함께 다양한 CSR 활동을 펼쳤다. 현대건설은 건설 시공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해 미안마 양곤 타케타 지역 소재의 초등학교·고등학교·공립 유치원 등에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건물 외벽 및 노후 교실 보수 △벽화 조성 △습터 조성 △현지 아동 특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미안마 양곤 주 국회의장, 복지부 장관 등 현지 주요 인사와 주미안마 한국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안마 정부의 현대건설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 행사를 가졌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과기한림원 이사장에 이명철 前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9대 이사장에 이명철 전 원장이 선임됐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2월까지 3년이다.

이명철 이사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의대 교수로 일했다. 가천의대 길병원장,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 국군수도병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도 맡은 바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인사

-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관리담당관 김정 △심사정책과장 이근후
- ◆중소기업중앙회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 겸 고용지원본부장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 소한섭

부음

- ▲이성봉(전 구리고등학교 교장) 씨 별세, 이남근(지역업)·화남·희곤 씨 부친상, 김재호(세계일보 광고국 영업2팀장)·김창수(LG전자 해외영업부장) 씨 장인상 = 11일,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201호, 발인 13일 오전 10시, 02-2215-4444
- ▲임광유 씨 별세, 임형준(세계식량계획 서울사무소장)·지영(부산 대동병원 약제팀장)·형주(경기대 교수) 씨 부친상, 권경훈(한국일보 부산취재본부 차장) 씨 장인상 = 11일, 부산 대동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51-550-9991

신율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로페이와 신용카드와는 달리, 일시 불만 가능하다. 또 은행에 있는 잔고 범위 내에서만 지불이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카드를 썼을 때,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여러 혜택도 없다. 상황이 이렇진대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의 '선함에 호소'하거나 '계몽'하려 든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흔히 후기 산업사회라고 한다. 후기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이익이 집단적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점이다. 집단적 이익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노동자와 자본가 집단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자 집단과 자본가 집단 사이의 이익 갈등이 산업사회의 가장 주요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런 집단적 이익 갈등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노동문제에 있어 이데올로기는, 노동자 집단이나 자본가 집단에, 지금 그들이 갖는 불만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그 불만 해소 방안을 제시해 주며, 동시에 불만과 갈등이 해소되고 난 이후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데올로기의 이런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집단적 갈등에서 파생되는 불만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만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 불만의 구체적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불만을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 이때 이데올로기가 그런 불만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불만 해소 방식

까지 제시해 주는 일종의 지도(地圖)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데올로기는 불만의 원인과 불만 해소를 위해 취해야 할 방식까지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산업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계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계몽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데올로기는 힘을 쓰지 못한다. 개인 차원의 이익 갈등은 복잡한 양상을 띠기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계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 설립이 추진될 때, 이를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계몽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현 정권의 담당자들은 아직도 계몽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제로페이가 일반화되면 수수료가 낮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제로페이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 분명 자영업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명분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일시불만 가능하다. 또 은행에 있는 잔고 범위 내에서만 지불이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카드를 썼을 때,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여러 혜택도 없다. 상황이 이렇진대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의 '선함에 호소'하거나 '계몽'하려 든다.

이는 분명 시대착오적 접근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역시 개인적 이익이 상당히 두드러진 상황으로 이런 분위기에 국민들에게 호소하거나 국민들을 계몽하려 드니, 정부의 말이 먹힐 리 없다. 아마도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한때 나온 것 같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개인적 이익 침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해, 불만을

배가시키게 될 것이다. 도무지 현 정권이 하는 일에서, 공감이나 자발적 참여를 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지 반문하고 싶다. 거의 매일 나오는 말이라곤, 자신들은 선하니 믿어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책의 취지는 선하니 당연히 공감해야 한다는 식의 계몽이나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현 정권 담당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계몽을 받아야 뭔가를 깨우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또, 정치와 경제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은 계몽한다고 알게 되는 존재가 아니다. 정치와 경제라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적 멘털을 가지고, 또, 자신들이 대학생 시절의 흑백 논리적 이분법을 가지고, 21세기의 정치와 경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절충을 꾀해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다.

정책발언대

이상훈

한국환경경영평가학회 고문
전 수원대 교수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2월 22일 금강의 보 3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모여 작년 11월 시작해 총 40여 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친 후에 발표한 최종 방안을 보면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 그리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과 수질·생태, 이수·치수, 보의 안전성, 그리고 지역주민 인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발표되자 야당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심해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필자는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고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공주보에 관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주보를 해체하면 가뭄 시에 농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하느냐는 걱정이다. 농민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높은 곳

에 위치한 댐에 비해 보는 하천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먼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펌프 시설과 관로 등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보는 댐에 비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경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5년에 충남 서북부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식수 공급마저 위태롭게 된 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백제보 아래에서 보령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로 건설하였다. 당시 625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보령댐 도수로는 거리가 21.9km에 달하고 도수로의 끝 지점이 시작 지점보다 140m나 높아서 물을 모터로 계속해서 뿜어 올려야만 하는 시설이었다.

농민들은 알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논보다 높은 상류에 있기 때문에 물은 자연유하식으로 동력 없이 공급된다. 그러나 보령댐 도수로는 거리가 멀고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물을 뿜어 올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더욱이 농민들은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보령댐 도수로의

물을 농업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했다. 일부 수막재배 농민들의 민원사항은 관정을 조금 깊이 파면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세종보에 관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세종보를 철거하면 현재 사용하는 양화취수장에서 취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이 문제는 예산을 반영해 취수구를 낮추는 시설을 갖추면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다.

둘째는 세종보 상류에 현재 건설 중인 금강보행교는 자동차는 다닐 수 없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관광용 다리인데, 세종보가 철거되면 물이 없어 관광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염려이다.

이 문제는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처럼 세종보에 물을 채워두면 조류농도가 높아지고 냄새까지 나는데 누가 금강보행교를 방문할까? 오히려 현재의 호수를 강으로 복원해 맑은 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강물, 그리고 양쪽에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있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문 전면 개방 기간에 예년(2013~2016년) 같은 기간 대비 조류농도가 30% 감소했다.

세종보와 공주보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관리수위를 유지하면 홍수 시에는 불리하고 가뭄 시에도 별로 유용하지 않다. 금강의 3개 보에 있는 물은 상류인 대형 다목적댐에서 방류한 물을 큰 그릇에 저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물그릇이 커지게 되자 물의 체류시간이 늘어나 녹조가 발생하고 수생태계가 악화됐다.

4대강에 16개 보를 만들어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퍼뜨린 가장 잘못된 가짜뉴스다. 생각해 보자. 참이슬 오리지널의 알코올 도수는 20도이다. 소주를 따를 때에 소주잔이 커지면 알코올 농도가 변하는가? 소주를 작은 소주잔에 따르거나 맥주컵 또는 양동이에 따르거나, 알코올 농도는 변하지 않고 20도를 유지할 것이다. 국민들은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울여름에 4대강을 꼭 방문해 보기를 바란다.

금강의 보(淤) 해체 반대, 근거 없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함석헌 명언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말하는 씨알밖에 없습니다."

씨알은 민중, 민초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그의 사상의 열쇠말. 사상가, 민권운동가 겸 문필가. '폭력에 대한 거부', '권위에 대한 저항' 등 평생 일관된 사상과 신념을 바탕으로 항일·반독재에 앞장섰다. 오늘날 그의 생일. 1901~1989.

☆ 고사성어 / 야인헌근(野人獻芹)
촌사람이 미나리를 바친다는 뜻. 남에게 물품을 보낼 때 겸사(謙辭)의 말로 쓰인다. 열자(列子) 양주(楊朱) 편에 있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밭을 가는 농부가 먹어보고 맛이 너무 좋아 임금에게 드리려고 부엌집에 바쳤으나 맛이 없더라 그걸 바친 농부를 바웃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조롱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왕을 먼저 생각하는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 시사상식 / 플랫폼(platform)
본래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뜻했으나, 의미가 확대되어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 시스템·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승강장이 교통수단과 승객이 만나는 공간이지만, 매점이나 자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적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파생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제조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 기반을 말한다.

☆ 속담 / 처갓집 세배는 미나리강회 먹을 때나 간다.
내내 미루던 처갓집 세배를 갈 만큼 봄철 미나리가 맛있다는 뜻. 강회는 미나리를 데쳐 엄지손가락 정도의 굵기와 길이로 돌돌 감아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음식.

☆ 유머 / 사이즈
남편이 아내 생일 선물로 팬티를 사러 하자 점원이 부인의 사이즈를 물었다.
"잘 모르겠는걸. 근데 34인치 텔레비전 앞을 지나갈 때 화면이 안 보여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두산그룹의 재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중간지주회사 격인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두산건설 지원에 나선다. 지주회사인 (주)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두산건설발(發) 리스크가 두산중공업, (주)두산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두산건설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고, 당기순손실은 551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게 됐다. 두산건설은 희망되기도 추진하고 있다. 두산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를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두산건설 살리기'에 나선 두산중공업도 여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발전플랜트 시장 업황의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중공업은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두산 오너家, 이젠 침묵을 깰 때

내부 분위기는 악화하고 있다. 자본시장

법상 상장사의 신주 발행 물량 중 20%는 임직원이 참여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한다. 자체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계열사 지원 목적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반길 직원이 있을 리 없다.

두산 오너家, 이젠 침묵을 깰 때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나서야 한다. 사재 출연을 통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다고 밝히는 것도 방법이다. 총수의 유상증자 참여는 '회사 회생에 대한 의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은 임직원과의 소통에 나서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고인이 된 박용근 두산그룹 명예회장은 살아생전 재계에서 '침묵의 거인'으로 통할 만큼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자신의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모두 약속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이는 박 명예회장이 리더로서 말의 무게와 책임감을 중시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두 아들은 선친이 아꼈던 말과 행동을 보여줄 때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편집부, 사회경제부, 유통바이오부, 뉴스팀, 국제경제부, 중기IT부, 사진팀, 금융부, 자본시장부.

주소 06900 서울 동작구 여의대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금강안(金剛眼) 흑리수(酷吏手)

미술시장에서 가짜(僞作)의 존재는 속명적이다. 그 들쭉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꺾어야 하는 감정(鑑定)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가짜와 감정, 사람들은 이 둘을 두고 악과 선으로 대립시키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싸움판의 창과 방패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 대결의 치열함(?) 때문일까, 이야기는 풍성하고 관전하는 재미가 있다.

가짜와의 싸움은 대개 시간이 흐르면서 진위가 확인되어 승패가 가려진다. 한편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 대상에는 근현대 미술품도 있고 심지어 생존 작가들의 작품도 있지만 논란의 중심은 역시 고미술이다. 만 들어진 지 짧아도 100~200년, 길게는 수 천 년이 지난 탓에 제작 기록이나 소장 이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결과나 검색용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몇 안 되는 소위 이 분야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감식 의견에 좌우되기 마련이고, 결과에 대해서도 시비가 따르는 것이 다반사다.

그렇듯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만큼 어려운 것이 감정이다. 그 어려움에 대해 조선 후기 서화의 대감식안 추사 김정희는 “진정한 감정은 금강력사의 부릅뜬 눈과 흑독한 세무관리의 손으로 한 치 빈틈없이 무섭고 가혹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金剛眼 金剛眼 酷吏手)”고 하였다. 온 정신과 오감을 집중하여 눈에는 다이아몬드의 강기를 담아 작가의 손놀림은 물론이고 필획이 일으킨 바람의 흔들림까지 감지하는 섬세함을 갖추어야

김지호의 古美術을 찾아서

고미술 평론가
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 의미를 조금 확대하면, 감정은 진위의 차이를 넘어 작품에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생의 비밀을 밝히고 살아온 이력을 살펴 잃어버린 존재의 가치를 복원시키는 날카로운 눈매에다, 위장된 생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차가움이 있어야 한다. 비유컨대 유물의 복권(復權) 여부를 결정하는 감정은 원인 모르는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부검(剖驗)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감정의 그 엄중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시대에 따라 많은 감정 결과가 가변적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적당황스럽게 한다. 새로운 자료와 기법이 등장하고 인간의 지력이 진보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변덕스런 인간성 때문인지 어제의 진품이 오늘은 가짜가 되고, 어제의 가짜가 오늘은 진품으로 판정되기도 한다. 어쩌면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는 미술품 감정의 그런 무상(無常)함이 이 세계의 매력(?)인지도 모르겠다.

한편 상거래에서 감정의 의미는 좀 더 현실적이다. 정확한 감정은 일차적으로 가짜의 범람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또한 미술품 시장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즉, 진위에 대한 정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폭넓게 공유될수록 미술품 컬렉션이나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과 불확실성은 최소화되고 나아가 시장구조의 안정화와 규모 확대는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확한 감정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는 미술시장을 안정시키는 닻(anchor)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닻의 무게가 너무 가벼운 탓일까, 미술시장은 가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심하게 출렁거렸고 지금도 그 가능성이 곳곳에 잠복되어 있는 형국이다. 지난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본 나의 눈에는 그것이 한 편의 드라마 같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뒤돌린 본성을 떠올려야 하는 고통이 뒤따랐고, 악도 사람의 본성일 거라는 합리적 의심에 몸서리칠 때도 많았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추사의 말처럼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감각과 직관에 크게 좌우되는 영역이다. 과학적 접근이 여의치 않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다. 그 부분을 남아 있는 기록이나 기억, 이 시대의 미감으로 메운다면 그것은 나름 최선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가짜는 곳곳에서 활개 치고 있고 그것을 걸러내야 할 감정의 그물은 성글기만 하다.

나는 소망한다. 진품이 가짜로 판정되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져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가짜가 진품으로 판정되어 박물관 미술품 이곳저곳에 얼굴을 내미는 모습만은 정말 안 보고 싶다.

시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덴마크 모델’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5년 동안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즉각 “노동자·시민에만 양보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말이 좋아 대타협이지, 되지도 않을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 후진적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해결과제가 된 지는 오래이다. 글로벌 경쟁력평가기관들 모두 끊임없이 지적해온 고질적 문제다. 작년 10월 나온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도 우리 노사협력 경쟁력은 세계 124위로 바닥이었고, 정리하고 비용(114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용이성(104위), 고용 및 해고관행(87위) 등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인적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거론한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목되는 건 사실이다. 이런 걸림돌부터 제거하지 않고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뒤늦은 자각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친(親)노동에 편향돼 왔던 정부 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까지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의지가 진정성을 갖는지의 문이다. 솔직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동안 노동개혁을 가로막은 게 지금 정권과 민노총 세력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이 지금 정권에서 폐기됐다. 성과연봉제를 통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기득권에 맞서 지난 정권이 어렵게 이뤄낸 최소한의 개혁마저 되돌렸다.

여태 거꾸로 가다가 이제 와서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말한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사회적 합의기구로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지금 ‘귀족노조’의 기득권 세력인 민노총에 휘둘려 반쪽 상태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대책까지 경사노위의 결에 실패했다.

민노총은 홍 원내대표의 노동개혁 주장에 대해 “이런 모습 보려고 ‘적폐 정권’을 끌어내렸던 게 아니다”라고 반응한다. 정권 교체의 공신이라는 그들의 작각이 끊임없이 기득권을 키우기 위한 청구서를 남발하게 만들고, 정부는 계속 민노총에 끌려가고 있다. 노동개혁의 절박한 현안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대화, 개혁도 거부한 채 제멋만 챙기겠다는 민노총을 넘어서지 않고는 공염불일 뿐이다.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장

엄마가 변했다. 가족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면 ‘과거의 엄마’, 사회생활을 하며 자기계발에 힘쓰는다면 ‘오늘의 엄마’란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내놓은 ‘트렌드 코리아 2019’ 키워드에는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등장했다. 한 방송사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목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패러디한 것으로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는 가족에게 밥을 해주는 대신 밥을 사주고 남은 시간은 자기계발에 투자한다. 집안일은 요리 등 잘하거나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한다. 청소 등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남편과는 동반자 의식을 지니면서도 자신의 취미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외모를 가꾸는 건 기본이다. 웬지 낯선 엄마의 모습이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얼마 전 한 신문사가 20~50대 여성을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는 자기계발 중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히 달라진 ‘엄마상(像)’을 볼 수 있다. 응답자 대부분은 “달라진 이미지의 엄마가 되기 원한다”며 “자신에게 투자하고 미래를 꿈꾸는 엄마로 살고 싶다”고 했다. 또 ‘과거의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희생’과 ‘살림’을, ‘오늘의 엄마’ 모습으로는 ‘사회생활’과 ‘자기계발’을 꼽았다. 무조건 희생해 가족을 세우려던 엄마들이 이전 적극적으로 ‘나’를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일을 말할 때 ‘자기계발’과 ‘자기개발’ 중 어느 것이 맞을까? 이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을 여럿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맞다. ‘개발(開發)’과 ‘계발(啓發)’은 ‘상태를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비슷한 말이다. 하지만 의미상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해 써야 한다.

계발은 인간 내면에 ‘잠재돼’ 있는 슬기,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밖으로 드러나게 함을 뜻한다. ‘상상력 계발’, ‘소질 계발’, ‘외국어 능력 계발’처럼 쓸 수 있다. 개발은 계발보다 훨씬 더 폭넓게 쓸 수 있다. 우선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학습

등을 통해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신제품 개발’, ‘프로그램 개발’처럼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다는 의미도 있다. ‘수자원 개발’, ‘유전 개발’과 같이 토지나 천연자원 등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산업·경제 등을 발전하게 하는 일에도 개발이 쓰인다.

한마디로 계발은 인간의 잠재된 능력만이 대상이 되지만, 개발은 인간의 지식, 재능은 물론 토지·삼림·천연자원, 경제·산업·기술 등 대상 범위가 넓다. 따라서 자신이 지닌 능력을 더 발달시키는 일은 ‘자기개발’, 아직 발휘되지 않은 잠재된 능력을 끄집어내 일깨우는 것은 ‘자기계발’이다.

개발, 계발과 관련해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는 물리적으로 이뤄내는 일에 ‘계발’을 쓰는 것이다. ‘신제품 계발’, ‘남해상의 유전 계발’, ‘3기 신도시 계발’ 등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아니므로 모두 ‘개발’로 써야 올바른다.

엄마·아내·며느리·딸로서만이 아닌 ‘나’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개발 혹은 자기계발에 나선 이들을 응원한다. 목표를 향해 굳세게 나아가시라. jsiysh@



딱따구리나 사람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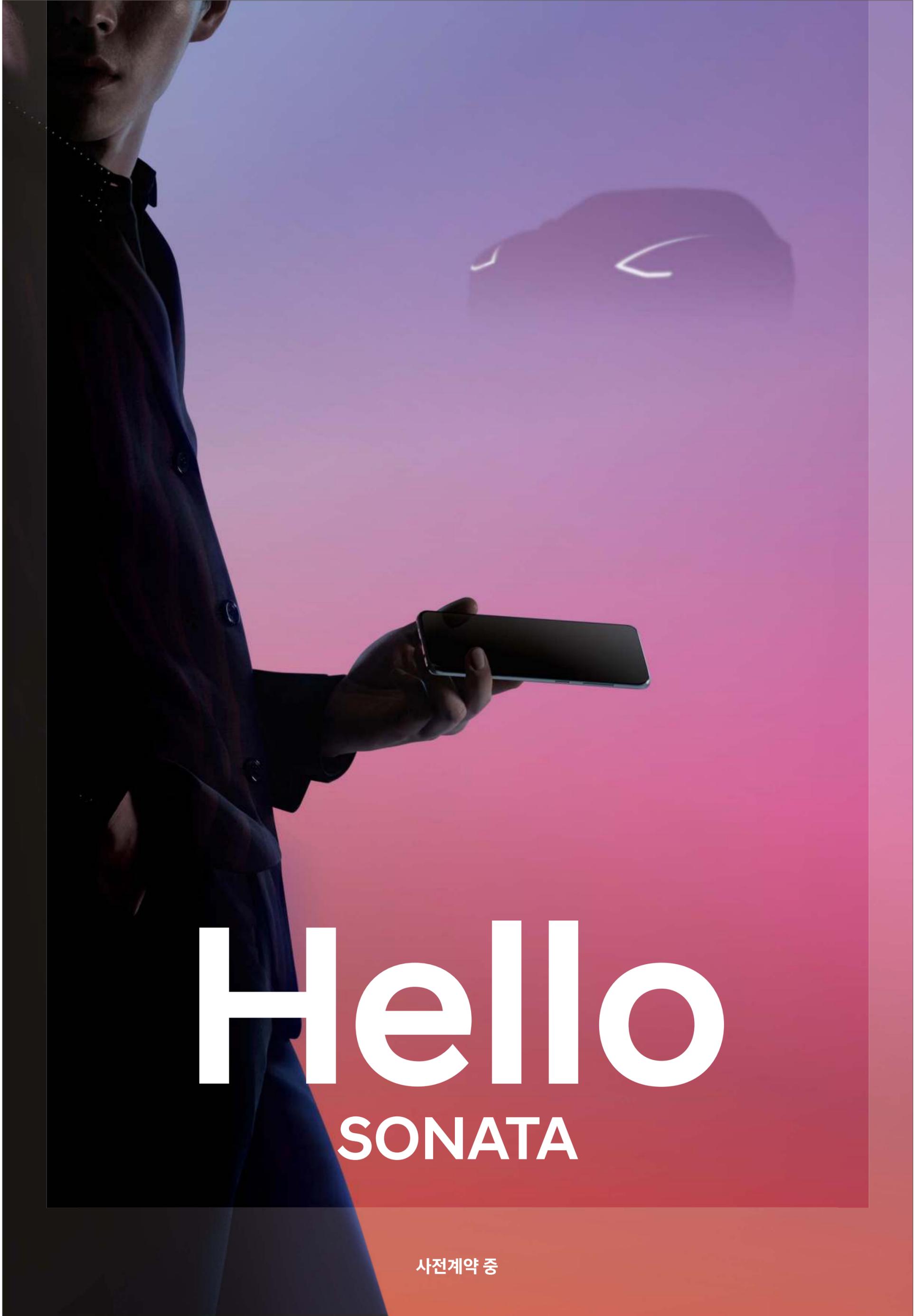
만물이 소생하는 봄! 꿈과 희망으로 가슴 부푸는 3월이건만 미세먼지로 인해 그 꿈과 희망이 빛을 잃는 것 같다. 맑은 공기를 맘껏 호흡하지 못하고 실내에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신체도 안타깝고, 미세먼지 속에서 부연 모습으로 멍하니 서 있는 것 핀 매화도 처량하다. 그 옛날의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고,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인류가 자초한 재앙인 것이다. 이런 재앙을 불러들이는 데에 앞장선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50보 100보, 자연에 대해 인류 맘대로 횡포를 부린 건 세계인이 마찬가지다. 전 인류가 다 같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된 처지이면서도 여전히 자연 파괴를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주까지 파괴할 양으로 우주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꼴을 보자면 인류가 지구상의 어느 동물보다도 미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 후기의 시인 이양연(李良淵·1771~1853)이 쓴 시에 ‘딱따구리아, 딱따구리아! 나무 쪼기를 멈추려무나. 이 늙은 나무의 배가 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비바람에 내가 쓰러지는 건 차라리 두렵지 않다만, 나무가 쓰러지고 나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진다. (啄木木啄木, 古木餘半腹. 風雨寧不憂, 木摧爾無憂.)’라는 시가 있다. ‘쪼락(啄)’과 ‘나무 목(木)’을 쓰는啄木은 ‘啄木鳥(조)’, 즉, 딱따구리를 뜻한다. 딱따구리가 자기가 살 나무를 쪼아대듯이 우리가 살 환경을 파괴한 결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시이다. 숨 쉴 공기마저도 없는데 인류의 편리를 위한대며 여전히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이 우매한 현실을 어찌 해야 할까? 탐욕으로 인해 짹 짹 버린 지혜의 샘을 뚫어서 인류의 이어리석은 ‘개발’을 멈추게 해야 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맑은 공기를 맘껏 마시던 그 옛날이 참으로 그립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Hello

SONATA

사전계약 중